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 육 학 석 사 학 위 논 문

인물사 학습을 위한 역사일기 쓰기 수업 모형 개발

-항일 독립 운동을 중심으로-



2009년 7월 10일

부경대학교교육대학원

역사교육전공

최 은 혜

교 육 학 석 사 학 위 논 문

인물사 학습을 위한 역사일기 쓰기 수업 모형 개발

-항일 독립 운동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강 인 욱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9년 7월 10일

부경대학교교육대학원

역사교육전공

최 은 혜

최은혜의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09년 8월 26일



주심 문학박사 박원용 (인)

위원 문학박사 신명호 (인)

위원 고고학박사 강인욱 (인)

목 차

ABSTRACT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II. 인물사 학습에 있어 감정이입적 학습의 개념 및 단계.....	3
1. 감정이입적 역사학습의 개념.....	3
2. 초등학교 학생의 학년별 역사의식의 단계와 특징.....	5
3. 인물사 학습에 있어 감정이입적 역사학습의 단계.....	8
III. 가상 역사 일기 쓰기를 통한 인물사 학습 모형 개발.....	13
1. 감정이입적 학습으로써 가상 역사 일기 쓰기.....	13
2. 인물사 학습에 있어 가상 역사 일기 쓰기 학습 모형.....	15
IV. 가상 역사 일기 쓰기 학습 모형을 통한 인물사 학습의 실제.....	24
1. 연구대상.....	24
2. 실태 조사 및 분석.....	25
3. 6학년 1학기 사회 교과서 분석 및 연구 제재 설정.....	30
4. 역사일기 쓰기 지도의 실제.....	38
5. 역사일기 쓰기 학습 결과 및 효과.....	48
V. 결론 및 고찰.....	62
1. 결론.....	62
2. 고찰.....	65
참고문헌.....	69

표 · 그림 목차

<표 1> 초등학생의 역사의식 발달단계와 특징.....	6
<표 2> 감정이입적 역사학습의 단계.....	9
<표 3> 감정이입적 역사이해 단계별 평가 기준 및 예시 답안.....	22
<표 4> 6학년 1학기 사회과 역사 수업의 실태.....	26
<표 5> 사회과에 대한 아동의 흥미도.....	26
<표 6> 사회과에서 흥미 있는 영역.....	27
<표 7> 역사를 공부할 때 힘든 점.....	27
<표 8> 역사 내용을 접하는 매체.....	28
<표 9> 역사에 대한 생각.....	29
<표 10> 시대별 인물 분석 및 빈도 - 제 7차 교육과정 사회과 교과서	31
<표 11> 영역별 인물 분석표 - 제 7차 교육과정 사회과 교과서...	33
<표 12> 인물에 따른 역사 일기 쓰기 주제의 맥락적 감정이입을 위한 학습 목표.....	35
<표 13> 역사일기 쓰기 지도 과정.....	35
<표 14> 주제 1 수업 개관.....	38
<표 15> 주제 1 교수 - 학습 과정안.....	39
<표 16> 주제 2 수업 개관.....	41
<표 17> 주제 2 교수 - 학습 과정안.....	44
<표 18> 주제 3 수업 개관.....	44
<표 19> 주제 3 교수 - 학습 과정안.....	45
<표 20> 인물 학습 주제에 따른 역사 일기에 나타난 일기의 유형(피드백 전).....	54
<표 21> 부정확한 배경 지식으로 인해 생긴 오류의 내용별 빈도수.....	56
<표 22> 역사적인 사실만을 나열한 일기를 작성한 아동의 수.....	58
<표 23> 피드백 전 후 역사 일기의 유형 비교.....	60
<그림 1>가상 역사 일기 쓰기를 통한 인물사 학습 모형.....	15
<그림 2> 인물 학습 주제에 따른 역사일기에 나타난 일기의 유형(그	

래프).....	55
<그림 3> 부정확한 배경 지식으로 인해 생긴 오류의 내용별 빈도수 (그래프).....	57
<그림 4> 역사적인 사실만을 나열한 일기를 작성한 아동의 수(그래 프).....	59
<그림 5> 피드백 전후 역사 일기의 유형 비교.....	60



Development of an Instructional Model on writing a historical diary for Learning
History of Personnel
- Focusing on the Anti-Japanese Independence Movements -

Eun Hye Choi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treatise is purposed to develop an instruction model in order to apply keeping a history diary to the instruction, as a plan to extend empathic contemplative faculty about the historic figures in elementary school, History field of Society subject. It is begun from their attitude of trying to understand the historic figures' deeds that juveniles speculate on the historic figures empathically. We should accept that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the thought of the men of old times and that of present, and recognize that they tried to act rationally in their old own way.

There is an individual difference in empathic contemplative faculty about the historic figures. It is from a step of not understanding their historic deeds and to a step of understanding the deeds, according to the circumstance of old times in their point of view. However, this treatise presents the history diary to extend juveniles' empathic contemplative faculty to the coherent empathic contemplative step.

As a main subject of the figure history, the treatise is based on the anti-Japan fighter for independence in elementary school 6th grade and the first semester. It is more effective on stimulating the learners to empathize when materials, which the juveniles receive in their step of making the

background information, contain historic complications. At the moment of historic crisis, Japan occupation, in terms of the historic upheaval period which manifests a lot of contradiction and historic tasks, there are many essential elements which stimulate the juveniles' empathic contemplative.

In this treatise, we develop an instruction model which is based on the anti-Japan fighter for independence as a subject of figure history, and it is constituted the keeping a history diary as a instruction activity to extend empathic contemplation. And it is guided by the instructor who promotes the empathic contemplation of juveniles with their collecting materials and searching activities. The model is constituted of 4 steps. The first step is to form the background information through the instructor's guidance, and juvenile's collecting materials and their searching activities. And the second one is a step for revitalization of the formed background information with empathizing. With this revitalized one, the third step is to reconstruct it imaginatively which means that it purposes to extend empathic contemplation by the historic diary. At the last step, there is evaluation which is based on the empathic contemplation steps with the results of activities, and the juveniles, who cannot get to the coherent step in the evaluation, go back to the second step.

The treatise develops an instruction and a guidance plan, which is applicable for the practice instruction, and the history instruction was given to 6th grade juveniles in 2009 Busan.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역사적인 인물을 바르게 이해한다는 것은 인물의 표면적인 활동상황이나 역사적 의의를 파악하는 것처럼 단편적인 사실을 나열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인물을 둘러싼 시공간적인 배경에 대한 연관성을 이해하고 인물이 왜 그런 행위를 했는가 하는 물음을 인물의 입장에서 사고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가령, 로마 공화정 말기에 제1회 삼두정치를 수립한 카이사르가 왜 루비콘 강을 건너 로마로 진격했는가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당시의 상황으로 돌아가 카이사르의 입장에 서서 그가 가졌을 법한 감정이나 동기, 행동을 상상적으로 더듬어 가야 한다. 이러한 역사 이해 방식을 콜링우드(R. G. Collingwood)는 재사고(再思考)¹⁾라고 부르고 있다. 이를 위해서 역사교육에서는 유추(類推), 상상, 감정이입(感情移入)과 같은 형태의 교수기법이 요구된다²⁾.

초등학생들은 역사드라마나 영화, 역사 학습 만화 등을 통해 과거 인물의 생각과 행동을 간접경험하면서 흥미를 느끼곤 한다. 이는 매체를 통해 과거 인물의 입장이 되어 역사적 상황과 시대의 흐름을 현실에 가깝게 느끼고 동감하면서 느끼는 만족감 때문이다. 실제 역사 수업 시간에 아동들이 기억하는 역사인물에 대한 정보는 대부분이 위인전에서 읽은 내용이며, 이때 기억하는 정보는 주로 인물을 둘러싼 에피소드나 인물의 도덕성, 활

1) Colling wood, R.G.(길현모 역), 『서양사학사』 (Te Idea of History), 탐구당, 1976.

2) 김한중, 『歷史教育에서의 想像的 理解』,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약상 등에 머물러 있다. 이는 학생의 역사에 대한 흥미는 자신이 숭배하거나 생각하고 있는 인물에 대한 관심에서 쏠트기 때문이다³⁾. 즉 아동들은 인물에 대한 감정이입적 역사 이해에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교과교육 외에 이루어지는 활동인 만큼 매체에 노출된 횟수의 차이에 따라 역사이해를 둘러싸고 학생들 간에 수준차를 보인다. 따라서 교육과정 안에서 아동들의 추체험을 통한 감정이입적인 역사 이해를 끌어오는 방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때 문제가 되는 점은 아동들이 시간성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가 하는 점이다. 역사 이해의 대상은 과거의 흔적이지만, 역사 이해의 주체는 현재를 살고 있는 아동들이기에 발생하는 시간적인 단절은 바른 역사 이해를 방해할 가망성이 크다. 그러나 아동들은 자의견 타의견 많게는 매일, 적게는 적어도 1주일에 한 번 이상은 ‘일기 쓰기’라는 활동을 통해 시간성과 관련된 개념을 이해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

일기는 하루 생활 가운데 인상 깊었던 일을 골라 자신의 내면세계를 솔직하게 기록하는 글이며⁴⁾, 자기가 겪은 하루생활과 생각, 느낌을 그날그날 적어 나가는 개인의 역사기록이다. 아동은 일기를 쓰면서 ‘오늘’, ‘어제’, ‘얼마 전’과 같은 시간의 길이를 나타내는 용어를 익숙하게 사용한다. 즉 일기 쓰기 과정을 통해 변화와 계속성, 인과관계, 발전 등과 같은 시간관련 개념들을 막연하게나마 인지하게 된다. 시간성에 대한 개념들은 역사의 본질적인 개념들로서, 이를 획득하는 것은 역사 교육의 중요한 목표가 된다.

아동들은 자신의 행위를 일기의 대상으로 하여 느낌, 감정, 동기, 행위에 대한 의도 등을 심각하게 고려한다. 이는 과거의 어떤 시대를 살았던 역사적 인물이 겪었던 문제의 본질이나 상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들의

3) 강우철, 『역사의 교육』, 교학사, 1974, p.334.

4) 교육부, 1991, p.286

행위를 감정이입적으로 추체험한다는 점에서 역사의 이해 과정과의 공통점이 있다. 따라서 아동들의 일기쓰기는 잠재적으로 역사의 본질적인 개념을 인식하는 한편 역사적 사고력을 신장시키는 학습활동으로서, 역사 인물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 활용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직접 역사적 인물이 되어 인물의 성격, 감정, 동기, 행위에 대한 의도 등을 추체험함으로써 인물에 대한 이해 및 감정이입적 역사 이해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수업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인물사 학습에 있어 감정이입적 학습의 개념 및 단계

1. 감정이입적 역사학습의 개념

감정이입이라는 말은 일상생활이나 여러 학문에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심리학에서의 가정이입은 자신의 느낌, 감정을 교환하는 개인간의 상호작용을 말하며, 사회학에서는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의 입장에 놓는 능력’ 또는 ‘입장을 주고받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역사에서의 감정이입은 감정이입적 이해로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정의적 측면의 감정이입과는 다르다.

역사적 감정이입은 행위자에 대한 이해와 역사적 상황에 대한 맥락적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므로 인지적 성격이 강하다. 그런 의미에서 역사

적 감정이입은 기본적으로 인지적 성격을 가지면서 정의적 성격이 가미되는 이해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⁵⁾

역사적 감정이입의 문제와 관련하여, Orlandi(1971)는 감정이입을 사회과에서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태도 중의 하나로 설정하고 정의적 행동의 영역에서 설명하고 있다. 또 Ciltham과 Fines(1971) 역시 감정이입을 역사학습을 하는데 필요한 태도 중의 하나로 파악하고 있다. 영국 학교교육심의회 역사분과의 보고서에서는 역사 학습에서 학습자에게 요구되는 능력의 하나로서 감정이입을 제시하고 있다. 감정이입은 다른 사람의 마음 속이나 감정 속에 들어가는 것으로 규정되고 있으며 Coltham과 Fines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역사적 증거에 토대를 두어야 하는 역사적 감정이입의 성격을 강조한 점이 다르다. 영국 교육과학부는 역사적 감정이입을 과거에 살았던 다른 사람의 처지나 관점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보고, 역사적 감정이입은 연령과 능력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학습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역사를 감정이입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과거 사람의 행위를 이해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⁶⁾. 과거인의 생각은 현재와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과거인도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행동하려고 하였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예컨대 과거 사람의 행위를 미신이라거나 무식해서 그렇다는 식으로 생각할 경우, 역사적 사실을 감정이입적으로 이해할 수는 없다. 또한 과거 사람은 오늘날 사람과 마찬가지로 인간성을 소유하고 있으며, 과거의 생활 형태는 그 시대의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⁷⁾.

5) 최상훈, 「역사적 사고력의 의미와 하위 범주」, 『역사교육과 역사인식』, 책과 함께, 2006, p 64.

6) 차하순, 『역사의 본질과 인식』, 학연사, 1988, p. 146.

7) 전국역사교사 모임, 『우리 아이들에게 역사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2002, p.297.

인물사 학습에 있어 감정이입적 역사학습의 적용이란 역사적 사건과 시대를 이해하고 현재 삶에 반영하는 교수·학습이며, 감정이입을 하는 과정에서 역사적 인물이 되어 역사적 사건에 직접적으로 빠져드는 것을 말한다⁸⁾.

2. 초등학교 학생의 학년별 역사의식의 단계와 특징

가. 역사학습에서 인지 발달의 문제

수업에서 가르칠 내용을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사고방식과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

피아제의 인지발달론을 역사교과에 적용해보면, 역사학습에는 수학이나 과학에서와 같이 형식적 조작단계의 사고가 필요하며 이러한 수준에 이르는 시기는 16세 전후라고 한다. 이러한 연구는 역사학습의 핵심부분이 학생들의 논리적, 추상적 사고를 필요로 하므로 초등학교, 중학교 수준에서는 역사가 교육내용으로 부적당하다는 의미이다.

이에 대해 피아제의 이론 적용의 타당성을 비판하고 역사학습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주장하는 반론이 일어났다. 특히 강도 높은 반론을 제기한 학자는 부스(Martin Booth)로 그는 역사는 과거에 대해 가장 믿을만한 설명을 언어로 재창조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인증적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인증적 사고는 관련된 사건의 공통된 부분을 연결하고 상상의 망을 형성하는 것이므로 자연과학과는 다른 역사의 특수한 지식형태와 관

8) 한경자·김한중, 『역사와 수업모형의 이론과 실제』, 권낙원 편, 『기본 수업 모형의 이론과 실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연구원, 1989, p. 273.

련하여 아동들의 사고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래서 그는 효율적인 교수방법을 거친다면 역사학습에서도 학생들이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이 뚜렷하게 증진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⁹⁾

부스의 주장을 요약하면 14~16세의 학생들은 인증적으로 사고할 수 있으며, 역사를 학습함으로써 인지적·정의적 사고를 증진시킬 수 있다. 즉, 학습에서 중요한 것은 성숙이 아니라 교수방법 및 교수내용이라는 것이다.¹⁰⁾

초등학생들이 역사를 배우는 것은 발달 단계로 보아 쉬운 과정이 아니긴 하지만, 부스(Martin Booth)가 주장하는 대로 교수방법과 교수 내용을 아동들에게 맞도록 특히 노력해야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나. 초등학생의 학년별 역사의식의 단계와 그 특징

역사의식이란 역사적 인식과 역사적 행위의 근거가 되는 존재의식이며 자아개념이다. 학습자는 역사학습을 통하여 역사적 관심과 역사적 이해력을 얻는다. 이러한 역사의식은 학습자의 능력과 교육정도, 가정의 문화적 환경에 따라 그 발달 단계는 다소간의 차이가 있으며, 이것은 고정 불변의 것이 아니라 가변성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역사의식의 단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초등학생의 역사의식 발달단계와 특징

9) 양호환 외, 『역사교육의 이론과 방법』, 삼지원, 1997. 297-298.

10) 양호환, 「역사학습에서 인지발달에 관한 몇 가지 문제」, 『역사교육』, 제58집, 1995.

학년	단계	특징
1~2학년	감고의식	• 막연하게 옛것을 느낌 • 자기 중심적임 • 역사적 시간이나 사건을 주관적으로 인식 • 사물에서 옛 것을 느낌(직관적임) • 고금의 구별이 불명확 • 동화와 같은 이야기를 좋아함 • 현실과 허구를 제대로 구별하지 못함 • 역사학습 불가능
3학년	고금의식	• 옛 것과 오늘날의 것을 구별함 • 자기 중심의 해소 • 옛 것과 지금 것을 비교하여 다르다는 것을 이해 • 고금의 차이를 자기 나름으로 설명 • 고금 사이의 시간의 흐름, 시간의 거리를 느낌 • 현실과 허구의 구별이 가능
4학년	변천의식	•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천을 느낌 • 동간격 단위의 시간성을 느낌 • 역사의식이 전환기임 • 연표학습 활동 가능 • 영웅, 무용담에 관한 흥미가 나타남
5학년	인과의식	• 시간의 흐름을 종적으로 파악 가능함 • 변천의식의 심화, 역사성을 느낌 • 과거와 지금의 차이를 사회생활의 의미로서 비교 • 역사적 인과관계를 초보적으로 평가하기 시작 • 생활주변의 문화현상에 대한 역사적 관심 커짐 • 주제별 학습 가능
6학년	시대의식	• 인과의식의 심화 • 인물을 시대와 관련지어 파악 • 체계적 역사교육 가능함(초보적 구조임) • 시대구조나 시대관련의식은 미약함 • 전기적 일화적 이야기를 좋아함

이처럼 초등학교 학생의 사고력의 발달단계를 살펴볼 때, 초등학교에서

의 역사적 사고력을 기르기 위한 역사수업은 변천발달의식이 성장하고 시간의 흐름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역사의식의 변혁기인 4학년 이후부터 가능하리라 보며, 특히 5, 6학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역사수업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초등학교 학생들이 역사를 감정이입적으로 이해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3. 인물사 학습에 있어 감정이입적 역사학습의 단계

역사적 감정이입은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의 입장이나 관점을 맥락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다. 감정이입적 역사학습의 단계에 대한 연구들도 역사적 자료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 능력에 관심을 쏟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이 과거 인간의 행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

Shemilt(1984)는 ‘13~16세 학생들의 역사수업 평가’에서 4단계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1단계는 역사적 지식과 감정이입적 이해를 타당하지 않게 적용한다. 판에 박힌 설명이나 상식적 설명, 역사주의적인 설명을 하는데 그친다. 2단계는 타당한 역사적 분석을 한다. 그러나 외면적인 분석에 머물며 감정이입적 이해에는 이르지 못한다. 3단계는 과거 인간의 행위를 내면으로부터 설명한다. 그러나 20세기적인 세계관으로 현대인과는 다른 삶의 형태나 사고방식을 재창조하려고 하지 않는다. 4단계는 진정한 역사적 감정이입을 한다. 20세기적인 선입견에서 벗어나 현대와는 다른 세계관을 재창조하려고 진정으로 시도한다.

감정이입에 대해 Ashby와 Lee(1987)은 인간 행위에 대한 이해로 보고 다음과 같은 5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단계 1은 결함 있는 과거로서,

오늘의 눈으로 역사를 인식하여 과거인의 행위를 결함 있는 행동으로 본다. 단계 2는 일반화된 정형으로서, 행위나 제도 등을 사람들의 의도, 상황, 가치, 목적에 대한 정형화되고 고정적인 해석에 의해 이해한다. 단계 3은 일상적인 감정이입의 단계로서, 행위, 제도 등을 특정한 상황에 대한 증거에 의해서 이해한다. 즉, 자신의 경험에서 이해의 실마리를 찾는 단계이다. 단계 4는 제한적인 역사적 감정이입으로서 과거인의 믿음, 목적, 가치가 우리와는 다르다는 것을 이해한다. 단계 5는 맥락적 역사적 감정이입으로서, 광범한 맥락속에서 이해나 설명을 하려고 한다. 현재와 과거의 차이를 인정하고 자신의 관점을 바꾸려고 시도한다.

위의 이론들을 바탕으로 김한중(1994)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학생들의 감정이입적 역사학습의 단계를 <표 1>과 같이 크게 4단계로 구분하였다¹¹⁾.

<표 2> 감정이입적 역사학습의 단계

단계	사고의 과정	감정 이입
1	역사적 행위를 이해하지 않으려는 단계	×
2	고정관념에 의한 감정이입	△
3	일반적 감정이입	△
4	맥락적 감정이입	○

× : 감정이입이 일어나지 않음

△: 감정이입적 이해이긴 하지만, 역사교육에서 의미하는 감정이입은 일어나지 않음

11) 김한중, 「역사적 사고력의 구성요소와 역사수업의 발문」, 『사회과교육』 29, 1996, pp.95-99.

○: 역사교육에서 의미하는 감정이입이 일어남

학습자는 역사를 이해할 때 【단계1. 역사적 행위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단계】 (이하 【단계 1】)에서 【단계2. 고정관념에 의한 감정이입】 (이하 【단계2】) 그리고 【단계3. 일상적 감정이입】 (이하 【단계3】)을 거쳐 【단계4. 맥락적 감정이입】 (이하 【단계4】)에 이르게 된다. 각 단계마다 학생들이 어떠한 사고과정에 있는지 예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래에 제시된 예들은 셰밀트의 연구 결과를 참고한 것으로, 그는 학생들에게 13세기 사람들은 에드워드왕이 환자에게 손을 대면 병이 낫는다고 믿었다는 사실에 대해 “왜 병이 치료되지 않았는데도 그들은 치료된다고 믿었을까?”라는 질문을 던졌다. 우리는 학생들의 대답을 통해 각 단계마다 그들이 어떠한 감정이입적 역사이해의 상태에 있는지를 알 수 있다.¹²⁾

【단계1. 역사적 행위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단계】

· 이 단계에서는 역사적 행위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 과거인의 사고방식이나 행위를 불합리한 것으로 여기면서 그들의 생활방식에는 결함이 있다고 여긴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감정이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예)

- 그들은 아둔하고 어리석어서
- 우리만큼 발달하지 못해서
- 원시시대에 살아서 발달이 뒤떨어졌으므로

12) Shemilt, "Beauty and Philosopher: Empathy in History and Classroom", p. 76, 김한중, <역사학습에서 상상적 이해의 방안>, 《역사교육의 이론과 방법》, 삼지원, 1997, pp.304~305에서 각주 117) 참조.

【단계2. 고정관념에 의한 감정이입】

· 이 단계에서는 과거의 모든 행위를 특정 요인에 의해 이해하려고 한다. 신이나 종교, 관습, 그리고 계급 등에 의해 역사적 행위를 이해하는 것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역사적 행위에 대한 감정이입적 이해를 시도함으로써 역사적 상황에 대한 외면적 분석은 하지만 행위의 의도를 내면적으로 이해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아직 감정이입적 역사이해에 이르지 못한다.

(예)

- 르네상스 이전의 종교시대에 살았으므로 초자연적인 치료의 힘을 믿었다.

【단계3. 일상적 감정이입】

· 이 단계에서는 배경지식이나 친숙한 경험을 활용하여 상식적 수준의 일상생활로부터 역사적 행위를 이해한다. 과거 인간의 행위를 내면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상황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은 대개 오늘날의 관점에서 과거의 사실을 이해하려고 한다. 다시 말해 오늘날의 세계관에 근거한 재구성으로 현대인과는 다른 삶의 형태나 사고 방식을 재창조하려고 하지 않는다. 역사적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시대착오적 이해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 단계의 감정이입 역시 역사교육에서 의미하는 감정이입이라고 할 수 없다.

(예)

- 종교나 왕정의 효율적인 선전이었다.
- 사람들은 항상 기적적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왔다.
- 사람들은 달리 의지할 것이 없었으므로 자포자기의 심정이었고 더 이상 일러주어버릴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단계4. 맥락적 감정이입】

· 이 단계에서는 과거인의 관점에서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역사적 행위를 맥락적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과거 사람들의 내면에 대한 이해와 당시 상황에 대한 이해가 동시에 이루어짐으로써 학생들은 현대와는 다른 과거인의 세계관을 재창조하려고 시도한다. 이 과정에서 비로소 진정한 감정이입에 이르게 된다.

(예)

- 병은 죄의 대가이며, 치료는 용서를 상징한다. 그러므로 환자들은 용서를 받아야만 했고, 왕의 주위를 도는 것은 고해성사로 여겨졌을 것이다.
- 왕은 단지 신의 목적을 위한 도구이다. 이 도구는 “깨끗하다.” 그리고 신의 은총을 받고 있는 상태에 있다.

역사를 이해하는 과정은 사고 과정이기도 하다. 사고 활동이란, 고정불변의 구분점을 찍고 각 단계를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에 위에 제시한 네 단계의 감정이입적 역사이해 단계 구분은 임의적인 것이다. 그러나 이해는 사고의 흐름이기 때문에 역사이해는 역사를 감정이입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단계에서 맥락적 감정이입에 이르는 일련의 발전적 단계를 거치게 된다. 학생들은 낮은 수준에서 역사를 이해했던 과거 자신의 이해 구조를 극복하고 좀 더 높은 수준의 이해에 도달하게 되지만 각 수준은 발달적 위계 관계가 아니라 감정이입적 이해의 논리적 과정이다.¹³⁾ 따라서 익숙한 내용일수록 감정이입적 역사이해의 수준은 높으며, 낯선 역사적 사실일수록 그 이해의 수준은 낮다. 요컨대 학생들은 감정이입적 역사이해의 각 단계를 거치면서 역사를 보다 폭넓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13) Ibid, p.30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감정이입적 역사 학습의 단계를 기준으로 초등학생의 사고 수준에 적합한 인물사 학습의 모형의 개발 및 적용의 가능성을 열어 보고자 한다.

Ⅲ. 가상 역사 일기 쓰기를 통한 인물사 학습 모형 개발

1. 감정이입적 학습으로써 가상 역사 일기 쓰기

감정이입을 통한 역사학습은 학생들의 흥미와 상상적 이해에 기반을 한 학습 형식이다. Shemilt(1984)는 인물을 통한 감정이입적 역사학습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역사상의 인물에 대하여 그 사람의 일생 혹은 어느 한 시점에 대한 위인전 성격의 글을 작성하는 ‘일대기 작성’, 역사상 인물의 배역을 맡아 연기하는 ‘드라마’, 그 인물이 되었다고 상상하는 형태의 ‘투사 활동’, 학생들이 참여자가 아니라 관찰자로서 자신을 다른 상황 속에 투사하는 ‘상상적 재구성’,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 과거 사람들의 행위나 신념에 대한 질문을 제시하고 응답하도록 하는 ‘감정이입의 딜레마’ 등의 방법이 그것이다.

영국 교육과학부는 학생들이 말, 글, 역할놀이, 모형제작 등을 통하여 감정이입적 이해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영국의 남부지역 시험위원회는 역할놀이와 상상일기 쓰기, 토론 등의 활동을 교수 방법의 사례로 제시하고 있다.

Portal(1987)은 시뮬레이션, 드라마, 그림 그리기 등을 통해 감정이입을 촉진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Colwill과 Burns(1989)도 연설문, 기고문, 편지글, 일기, 극화학습, 역할놀이, 시뮬레이션, 토론 등이 효과적인 감정이입 학습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김한중(1994)은 역사교육에서 감정이입을 통한 이해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학습 방법이 활용될 수 있으나, 그 중에서도 사료학습, 역할놀이, 시뮬레이션 게임에서 상상적 이해에 의한 역사적 사고 과정을 밟을 수 있으며, 과거인의 입장에서 그들의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상상적 이해 능력을 기를 수 있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주장하고 있는 수업형태들은 일정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는 학생들로 하여금 역사적 행위자의 의도나 목적을 이해하게 하고, 다음에 학생 자신의 이해를 글 또는 행동으로 표현하도록 요구한다. 본 연구에서는 글로 표현하는 수업 형태 중 역사적인 인물이 되었다고 상상하는 형태의 ‘투사 활동’에 중점을 두어 일기로 표현하는 것을 ‘가상 역사 일기’로 명명하고자 한다.

가상 역사 일기 쓰기란 특정한 역사적 상황이나 사건을 배경으로 하여 당시 행위자-역사적 인물-의 입장에 서서 가상 일기로써 글을 작성하는 형태이다. 이러한 글쓰기의 과정을 통해 역사적 인물의 입장을 경험하는 역사적 감정이입이 가능하다. 또한 자료나 자신의 기억으로부터 글을 쓰는데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이해를 높게 되며, 아이디어를 조직하고, 자신의 감정이나 직관·창의력을 표현하는 수단이 되고도 한다¹⁴⁾. 현재의 시각에서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 과거의 문화에 대하여 학습하려 할 경우에는 당시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사고 방식 속에서 생각해보고 과거의 사회상을 상상적으로 재구성하게 하는 가상 역사

14) 문창로, 『역사 글쓰기;를 통한 歷史學習의 접근방안』, 「중등교육연구」 53, 2005, pp.278~279.

일기 쓰기 활동이 유용하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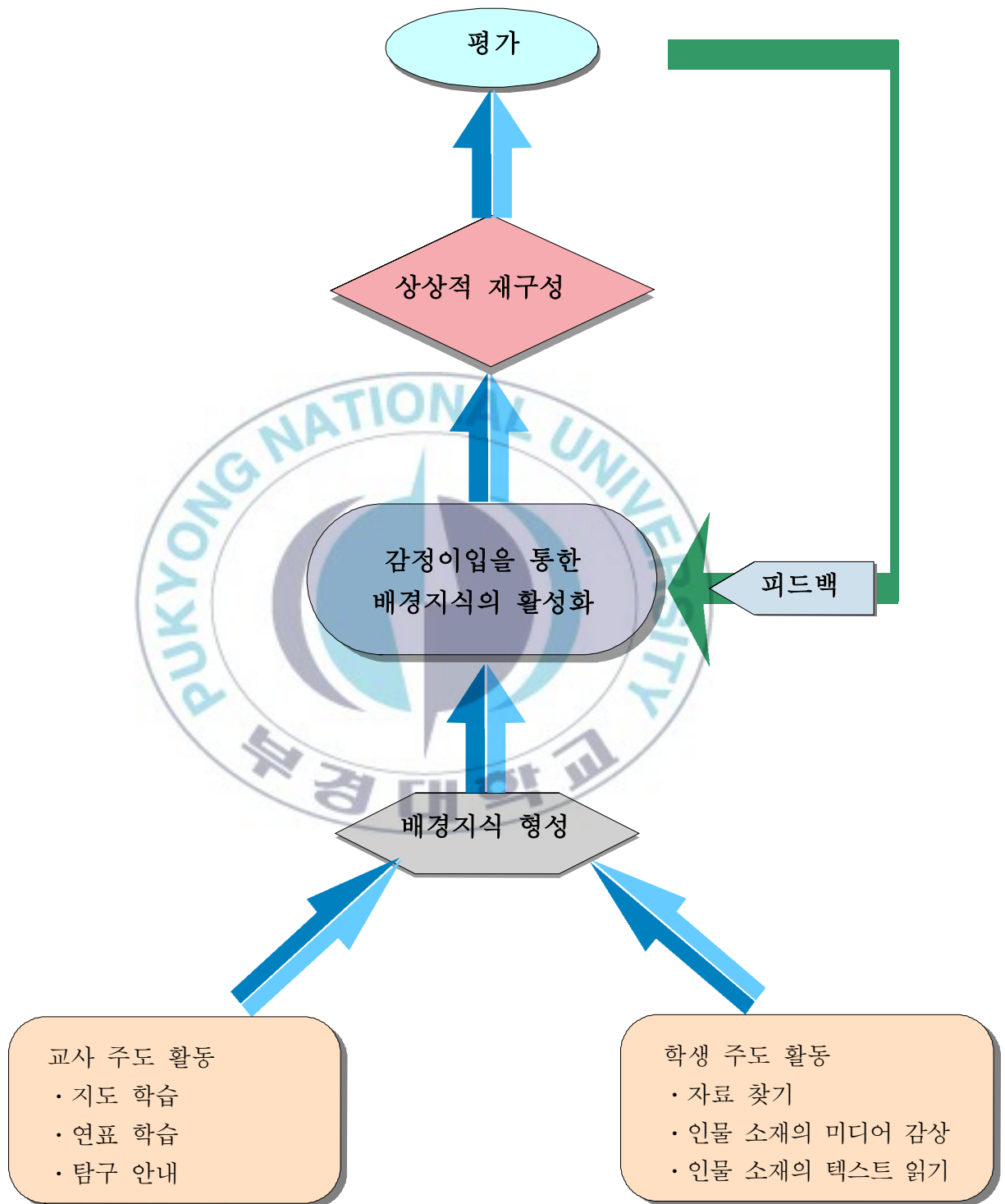
2. 인물사 학습에 있어 가상 역사 일기 쓰기 학습 모형

감정이입적 역사이해 신장을 돕는 데에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학습 방법이 가능하다. 그리고 학습 방법의 다양함 만큼이나 수업 또한 여러 형태로 진행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방식이든 하나의 역사 수업을 완결된 구조로 가정했을 때 그 수업들은 공통적으로 ‘배경지식 형성→표현→평가’의 과정을 거치는데, 필자는 김한중의 수업 단계¹⁵⁾와 정혜진의 수업 내용¹⁶⁾을 참고하여 수업 과정 및 그에 따른 활동을 다음의 (그림 1)과 같이 재구성하였다.

〈그림 1〉 가상 역사 일기 쓰기를 통한 인물사 학습 모형

15) 김한중, <추체험, 대안적 역사 수업 방법인가?>, 《역사교육》 제49호, 역사교육연구회, 2000, p. 163.

16) 정혜진, <포트폴리오 기법을 활용한 역사적 상상력 신장 방안>,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pp. 23~25.



가. 배경지식 형성

이 단계에서 학생들은 역사적 행위의 동기나 목적을 이해하려는 의식적인 활동을 통해 역사적 배경지식을 형성한다. 여기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것은 교사 주도의 강의식 수업이다. 적절한 교사의 설명은 학생들의 사고 활동 및 역사이해 향상에 도움이 되지만 일방적인 지식 전달은 오히려 학생들의 흥미를 저해할 우려가 있기에 지양해야 한다.

따라서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학습 방법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 도서관 혹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스스로 자료를 찾아보거나, 역사적 인물을 소재로 한 드라마나 동영상 등을 감상하는 방법, 또는 위인전이나 전기문 혹은 역사 신문과 같은 역사적 인물을 소재로 한 텍스트를 읽는 방법 등이 가능하다. 한편 교사는 학생 주도의 활동이라 하더라도 방관하지 말고 적절히 학생들의 활동을 지도해야 한다. 또한 역사를 소재로 한 영화나 소설을 활용할 때에는 역사적 사실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아님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역사 자료가 초등학생들이 이해하기에는 어려우므로 교사는 선택된 자료에 대한 번역을 하고, 설명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하며 더불어 학생들에게는 사료의 선택의 과정도 경험하게 해 주어야 할 것이다. 특히 교사는 감정이입의 대상이 되는 자료가 아동의 수준에 맞는지, 본시 학습에 있어 감정이입적 활동을 자극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학습자가 수집한 자료가 역사적 갈등 상황을 담고 있다면 학습자의 감정이입적 활동을 자극하는 데에 좀 더 효과적일 수 있다¹⁷⁾. 갈등 상황은 많

17) 김한중, 「역사학습에서의 상상적 이해의 방안」, 『역사교육의 이론과 방법』, 삼지원, 1997, pp.285-286. Ibid, p. 163.

은 경우 역사적 위기의 순간에 발생하는데, 이러한 순간들은 그동안 누적되어 온 여러 모순과 역사적 과제들이 한꺼번에 표출되는 역사적 격동기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크다. 또한 심각한 역사적 위기일수록 대처 방법에 대한 이해 세력들 사이의 의견 대립이 치열해지기 때문에 갈등은 더욱 고조된다. 게다가 역사적 인물이 처한 상황과 그들이 선택했던 해결책, 그리고 그러한 선택이 가져온 결과는 인물의 세계관과 가치관의 범주 내에서 이루어지며, 세계관과 가치관은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반영한다.¹⁸⁾ 따라서 아동은 갈등 상황을 담고 있는 자료를 통해 과거인이 처했던 위기의 상황을 가상으로 경험하여 자기 나름대로 당시 상황을 조망하고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나. 감정이입을 통한 배경 지식의 활성화

아동들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배경 지식을 형성하지만 수집한 자료들이 과거의 모든 상황을 충분히 설명해주지는 못한다. 따라서 아동은 드러나지 않은 이유까지 과거를 머릿속에 그려봄으로써 이해하려고 노력하는데 이러한 활동이 바로 감정이입인 것이다. 그러나 아동 스스로 자료를 해석하면서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교사는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질문을 적절히 사용해야 한다.

이때 교사의 질문은 과거 인물의 행위의 옳고 그름을 가리기보다는 그가 어떤 상황 속에서 왜 그렇게 행동했는가를 감정이입을 통해 추론하고, 그러한 그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으며 역사적 흐름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를 파악할 수 있는 질문이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인간의 사

18) 김문석, <감정이입을 활용한 역사 수업과 학생의 역사이해>,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001, pp.16-17.

고와 행동이 추출된 시대 배경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인물 행위의 의도, 전개과정, 결과 등을 탐구하기 위한 질문을 제시해야 한다.

예컨대 백범 김구 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하여 일제 강점기의 항일 독립 운동을 인물학습을 통해 수업할 경우 아래와 같은 질문을 통하여 감정이입적인 사고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질문1-3>

1) 백범 김구가 항일 독립 운동을 하였을 때 당시의 국내외 정세는 어떠했습니까?

2) 백범 김구가 상하이 임시 정부를 수립하여 항일 독립 운동을 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3) 자료를 통해 볼 때 백범 김구가 상하이 임시 정부를 수립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이유가 자료에 드러나 있지 않다면 추측해 보세요.

위의 질문1과 질문2는 학습자의 사고 과정에 따라 구성한 것이다. 실제로 학습자는 1번 질문에 대한 근거로 2번 질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전개한다. 따라서 2번 질문에 대한 학습자의 답을 통해 학습자가 역사를 얼마나 맥락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3번 질문은 특히 학습자의 감정이입적 갈등을 자극하여 학습자가 역사를 좀 더 맥락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요컨대 위의 질문은 학습자로 하여금 백범 김구의 입장이 되어 보게 함으로써 역사적 사건 이면에 숨겨진 좀 더 심층적인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위의 질문들을 통해 살펴보았듯, 이 단계에서의 교사는 아동들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위와 같이 심층적인 질문을 통해 학습자가 인물의 입장

이 되어 보게 함으로써 역사적 사건 이면에 숨겨진 좀 더 심층적인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교사는 학습자가 적극적으로 상상력을 동원하여 배경 지식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사고 활동을 자극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예컨대 교사는 아동들이 수집한 자료 중 갈등 상황을 드러내는 자료를 선별하여 이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질문을 제시할 수 있다.

다. 상상적 재구성

이 단계에서 아동들은 감정이입적으로 활성화된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가상역사일기쓰기를 한다. 가상 역사 일기 쓰기는 감정이입에 의한 역사적 상상을 하여 글로 쓰는 주관적 글쓰기 방법 중의 하나이다. 감정이입은 역사적 사료를 바탕으로 자신과는 다른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이해하는 과정이며, 자신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의 행위나 사회 현상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수단이다.¹⁹⁾ 그러므로 역사적 행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발생한 상황에 대한 맥락적 이해와 행위자의 주관적 사상이나 감정, 동기에 대한 이해라는 양면이 필요하다. 그러나 역사적 행위에 대한 이해의 두 가지 측면은 분리할 수 없는 밀접히 관련된 것으로 역사적 상황에 대한 객관적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 가상 역사 일기 쓰기는 앞 단계에서 형성한 배경 지식과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개인의 주관적 감정과 정서가 가미된 주관적인 글쓰기를 하게 되는 것이다.

가상 역사 일기 쓰기가 보통의 생활일기와 다른 점은 역사적 사료를 바탕으로 역사적 사실에 입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역사일기는 역사 이해

19) 이민호, 『역사학과 역사 교육』, 「역사교육」 제 34집, 1983, pp. 8-9.

를 목적으로 하는 역사학습의 하나로 진행되기 때문에 어떠한 표현내용이라든 역사적 사실에 입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점은 역사적 일기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부분이다. 이는 역사학습에서 상상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추체험 역사학습에서 사용되는 상상은 반드시 역사적 상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역사일기를 통해 과거 인물의 삶과 정신을 유추할 수 있으며, 역사일기 작성을 통하여 학생들은 과거의 행위자가 겪었던 일상생활 세계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하여 학습자 자신과는 다른 역사시대의 생활사를 이해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

라. 평가

이 단계에서 교사는 아동의 감정이입적 글쓰기 활동의 결과물을 통해 그들의 역사이해 정도를 측정한다. 글쓰기는 기본적으로 학습자의 표현 활동이지만 평가를 위한 자료가 되기도 한다. 교사는 아동이 쓴 글과 사료 학습 이전에 실시된 사전 평가 결과를 비교하여 아동의 역사이해 신장 정도를 살펴볼 수 있는데 평가를 위해서는 다음의 상황들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역사적 인물이 되어 자신의 선택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감정이입적 글쓰기는 학습자의 기호에 따라 글의 형식이나 표현 방법이 다양할 수 있다. 따라서 평가의 내용은 글 자체의 표현력이나 완성도보다는 글에 담겨 있는 역사이해의 정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물론 글쓰기는 그 자체가 중요한 교육활동으로서 학습자의 언어 표현 능력은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는데 영향을 준다. 그러나 역사이해를 평가하려는 목적에서 학습자의 글을 평가할 때에는 좀 더 평가 목적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글에 나타난 내용을 파악하는 데 좀 더 집중해야 한다.

둘째, 감정이입적 역사이해의 단계 구분은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 역사이해 각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사고과정을 고려하여 학습자의 역사이해 정도를 구분할 수 있는데, 20)평가 기준 및 예시 답안을 제시해 보면 다음의 <표 3>와 같다.

<표 3> 감정이입적 역사이해 단계별 평가 기준 및 예시 답안

감정이입적 역사이해 단계	평가 기준	예시 답안
단계1. 역사적 행위를 이해하 려고 하지 않는 단계	· 인간 행위의 의도나 역사적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함 · 나름대로 상상력을 동원하지만 역사적 맥락을 고려하지 못함	· 잘 모르겠다 · 특별한 이유가 뭐 있겠는가 · 백범 김구는 일본을 싫어했다.
단계2. 고정관념에 의한 감정이입	· 역사적 상황을 이해함 · 인간 행위의 내면을 이해하지 못하고 특정 요인에 의해 이해함	· 당시는 나라를 되찾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다. · 일본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많이 괴롭혔기 때문이다. · 상하이 임시 정부를 세우면 사람들이 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단계3. 일상적 감정이입	· 인간 행위의 의도를 이해함 · 역사적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오늘날의 관점에서 이해함	· 일제의 점령에서 벗어나려면 나라의 힘을 키워야했다. · 우리 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독립된 나라라는 것을 세계에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 · 일제에 대항하려면 독립운동가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필요가 있었다.
단계 4.	· 역사적 상황을 이해함	· 당시의 우리 나라 내에서는

20) 감정이입적 역사이해 단계에 따른 사고과정에 대해서는 <표 1> 참고.

맥락적 감정이입	• 인간 행위의 의도를 이해함 일본의 압박 때문에 자주적인 독립 세력을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상하이에서 임시정부를 세워야 했다. • 당시, 독립운동가들 사이에서도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와 자본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 등, 세력이 나누어져 있었기 때문에 흩어진 세력을 결집시켜서 힘을 모아야 했기 때문에 양쪽 세력의 중심이었던 김구가 주축이 되어 상하이에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임시 정부를 수립하여야 했다.
----------	--

위의 표를 통해 알 수 있듯, 평가자는 감정이입적 역사이해의 각 단계별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학습자의 역사이해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평가를 위한 질문에 대해 학습자가 평가 기준을 얼마나 충족시키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학습자의 역사이해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

그러나 역사이해 단계는 연속적인 사고의 과정이다. 따라서 일상적 감정이입의 수준 내에서도 이해 정도는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어떤 학습자는 이제 막 일상적 감정이입이 가능해졌을 수 있고, 또 어떤 학습자는 그 단계의 거의 끝 무렵에 이르렀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이 두 학습자의 이해 수준이 같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고정관념에 의한 감정이입에서 일상적 감정이입에 이른 학습자와 일상적 감정이입에서 맥락적 감정이입에 이른 학습자 중 어느 학습자의 역사이해 정도가 더욱 신장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 물론 사후 평가 결과만으로 본다면 맥락적 감정이입의 단계에 이른 학습자가 역사를 좀 더 잘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사후 평가는 학습자 개

인에 대한 사전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그의 역사이해 정도가 얼마나 신장되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사전·사후 평가가 의미 있는 작업인 이유는 이렇듯 학습자의 역사이해가 감정이입적 역사 학습을 통해 신장되었음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IV. 가상 역사 일기 쓰기 학습 모형을 통한

인물사 학습의 실제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감정이입적인 역사적 사고력 향상을 위한 수업 모형을 개발하고 부산광역시 동구에 소재한 B초등학교 6학년 1개 반을 대상으로 본 수업 모형을 투입하여 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 아동은 교육 경력 7년차의 연구자가 지도하고 있으며, 남학생 15명, 여학생 15명 총 30명의 아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 대상 아동의 학부모 교육 수준은 부모가 모두 대학을 졸업한 아동이 3명(10%), 부모 중 한쪽이 대학을 졸업한 아동이 5명(17%), 부모 모두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동이 8명(26%), 부모 중 한 쪽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동이 9명(30%), 부모 모두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아동이 5명(17%)인 것으로 볼 때, 대상 아동들의 학부모 교육수준은 보통 이하라고 할 수 있다.

30명의 아동 중 부모 모두 직업을 가지고 있는 아동이 14명(47%)으로 대부분 맞벌이 부부이다. 아버지의 직업을 살펴보면, 자영업 13명(43%), 회사원 8명(27%), 일용직 6명(16%), 상업 7명(23%), 기타 2명(7%)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직업은 주부 16명(53%), 상업 7명(23%), 일용직 4명(13%), 회사원 3명(10%)이었다. 부모의 직업 조사를 통해 부모의 경제적·사회적 위치는 주로 저소득층에 속한 것으로 보이며, 실험집단 아동이 속한 학구는 부산의 서민 다세대 주택 지역과 재개발 예정 지역을 포함한 빈민가 지역이 밀집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

이 아동들을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우선 연구자가 담임을 맡고 있으므로 수업 모형의 실시와 시간의 융통성 있는 적용이 가능하고 아동들의 반응을 관찰하기 수월하기 때문이다. 또한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역사과의 대부분이 6학년 1학기 사회에 치중되어 있고, 초등학교의 발달 과정상 6학년은 시대의식이 발달되어 인과의식의 심화 및, 인물을 시대와 관련지어 파악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므로 감정이입적인 역사 학습이 가능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2. 실태 조사 및 분석

가. 역사 학습의 실태 조사 및 방법

본 연구를 위해 현재 본인이 담임하고 있는 학급의 연구 대상 아동 30명에게 사회과 수업에 대한 생각과 역사적인 인물에 대한 인식과 사고를 물어, <표 4>과 같이 6학년 1학기 사회과 역사 수업의 실태를 조사·분석하였다.

〈표 4〉 6학년 1학기 사회과 역사 수업의 실태

구분	분석 내용		방법	대상	시기
6학년 아동	· 타 교과와 사회과의 흥미 비교	· 다른 교과와 비교할 때 사회과에 대한 흥미는 어느 정도입니까?	자작 설문지	본 연구 대상 아동 30명	2009.4
	· 사회과에서 흥미있는 영역	· 사회과에서 가장 흥미있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 역사 학습시 어려운 점	· 우리 나라 역사를 공부할 때 가장 힘든 점은 무엇입니까?			
	· 인물 이야기 읽기	· 교과서에 제시된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읽고 그것이 뜻하는 바를 알 수 있습니까?			
	· 역사 내용을 접하는 매체	· 역사과 관련된 내용은 무엇을 통해 많이 접하나요?			
	· ‘역사’에 대한 생각	· ‘역사’하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나. 역사 학습의 실태 분석 및 결과

본 연구를 위해 실시한 자작 설문 결과, 사회과에 대한 아동의 흥미도는 <표 4>와 같은 결과로 나타났다.

〈표 5〉 사회과에 대한 아동의 흥미도

(N=30)

설문 내용	항목	인원	백 분 율 (%)
• 다른 교과와 비교했을 때 사회과에 대한 흥미는 어떠한가요?	매우 재미있다	2	6.7
	재미있다	2	6.7
	보통이다	9	30
	재미없다	10	33.3
	매우 싫다	7	23.3

사회 교과가 ‘매우 재미있다’, ‘재미있다’는 각각 6.7%와 6.7%로 13.4%의 아동들이 답했다. ‘재미없다’, ‘매우 싫다’는 각각 33.3%와 23.3%로 56.6%의 아동들이 답해 적극적으로 싫다고 응답한 아동이 좋다고 응답한 아동의 4배 이상 나타났다.

〈표 6〉 사회과에서 흥미 있는 영역

(N=30)

설문 내용	항목	인원	백 분 율 (%)
• 사회과에서 가장 흥미있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지리분야	11	36.6
	역사분야	6	20
	정치분야	8	26.6
	경제분야	5	16.8

사회과의 영역별 흥미도에서는 역사가 다른 영역에 비해 20%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표 7〉 역사를 공부할 때 힘든 점

(N=30)

설문 내용	항목	인원	백 분 율 (%)
• 우리 나라 역사를 공부할 때 가장 힘든 점은 무엇입니까?	각 사건 별로 정리가 되지 않았다.	4	13.3
	인물이 많이 나와 혼란스럽다.	5	16.6
	각 시대의 흐름을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이 어렵다.	8	26.6
	인물과 시대를 연결하여 이해하는 것이 어렵다.	11	36.6
	기타	2	6.9

역사 공부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인물과 시대를 연결하여 이해하는 것’이 36.6%이며, ‘각 시대의 흐름을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이 26.6%로 나타나, 63.2%가 각 시대를 구분하여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나타냈다.

<분석>

아동들은 사회과가 재미없는 이유로 ‘공부할 것이 많고 지루하다’, ‘외울 것이 많다’, ‘내용 이해가 안된다’ 등을 들었다. 그렇지만 역사영역에 대한 흥미도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어릴 때부터 이야기 식으로 된 도서와 다양한 분야의 역사책, 만화 등을 통해 역사에 관한 내용을 접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그러므로 아동들이 역사를 더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료를 학습 활동에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아진다.

<표 8> 역사 내용을 접하는 매체

(N=30)

설문 내용	항목	인원	백 분 율 (%)
· 역사와 관련된 내용은 무엇을 통해 많이 접하나요?	TV드라마	13	43.3
	만화	6	20
	인터넷	4	13.3
	독서활동	7	23.4

역사와 관련된 내용을 접하는 매체는 TV에서 방영되는 드라마가 43.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독서 활동이 28.6%, 만화 25.5%, 인터넷 14.3% 순으로 나타났다.

〈표 9〉 역사에 대한 생각

(N=30)

설문 내용	항목	인원	백 분 율 (%)
· ‘역사’하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재미있다.	4	13.3
	어렵다.	8	26.7
	지겹다.	5	16.7
	복잡하다.	6	20
	외울 것이 많다.	7	23.3

‘역사’하면 ‘재미있다’가 연상되는 아동은 13.3%이며, 나머지 86.7%의 아동들은 ‘어렵다’, ‘지겹다’, ‘복잡하다’, ‘외울 것이 많다’의 부정적인 답을 하였다.

<분석>

역사에 관한 내용을 접하는 매체가 TV, 독서활동, 만화, 인터넷 순으로 조사되었는데, TV가 아동들의 사고 형성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드라마 전개상 각색된 내용을 사실로 믿어 잘못된 역사 개념이 형성되는 경우가 있어 실제 내용의 지도에 어려움이 있다.

23.4%의 아동이 독서를 통한 역사를 접하고 있으며, 만화 20%를 포함하면 과반수가 넘는 아동들이 책을 통해 역사에 관한 내용을 접하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들의 역사 인식 형성에 역사책이 큰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제대로 된 역사책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교사의 적절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보아진다.

<표 8>에서 ‘역사’를 연상하는 부정적인 답이 86.7%로 나타난 것은 5학년 사회과의 연장선상에서 나타난 결과로 보아진다. 역사를 이야기책으로 만날 때는 재미있지만, 교과로서 만날 때는 아동들에게 학습 부담을 주는 교과로 나타나 사회과를 재미있게 지도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아진다.

3. 6학년 1학기 사회 교과서 분석 및 연구 제제 설정

가. 교과서 인물 실태 분석

인물사 학습을 실시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인 교과서에 수록된 인물 분석은 본 연구를 실시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학생들에게 역사상의 인물을 지도할 때는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기본적인 내용과 학습의 방향에 따라 편찬된 교과서에 수록된 인물을 대상으로 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행 6학년 1학기 교과서에 수록된 인물을 영역별, 시대별로 분석해 봄으로써 본 연구의 추진에 참고하였다.

교과서에 수록된 많은 인물을 분석하려고 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시대

의 구분과 범주의 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편의상 시대의 구분을 고조선, 삼국시대, 통일신라와 발해, 고려, 조선(대한제국포함), 일제, 대한민국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인물의 범주 구분은 비슷한 활동 영역을 묶어 왕과 왕족, 정치가와 군인, 예술가, 기술자, 학자, 독립운동가, 종교가, 여성, 외국인 등 9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중복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인물의 활동 중 역사적 의의가 큰 1개의 영역에 포함시켰다²¹⁾.

<표 3>과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행 6학년 1학기 사회과 교과서에 수록된 총 인물은 111명이다.

시대별로 수록된 인물의 수를 보면 43.2%(48명)로 나타난 조선시대(대한제국 포함)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29.4%(26명)인 일제시대, 삼국시대 16.2%(18명), 고려시대 8.1%(9명), 통일신라·발해시대 5.4%(6명), 현대 2.7%(3명), 고조선 0.9%(1명) 등으로 나타나 교과서에 수록된 인물이 66.8%가 조선시대(대한제국 포함)와 일제시대의 인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는 현재를 기준으로 먼 과거보다는 근·현대에 가까운 인물일수록 자료가 풍부하고, 역사의 흐름이 과거를 바탕으로 발전되어 가기 때문이라고 본다.

<표 10> 시대별 인물 분석 및 빈도 - 제 7차 교육과정 사회과 교과서

구분	인물명(빈도)	인물 수
고조선	단군왕검(6)	1
삼국	고주몽(2), 박혁거세(2), 온조(2), 김수로왕(1), 소수림왕(1), 광개토대왕(8), 근초고왕(5), 진흥왕(5), 문무왕(1), 장수왕(5), 법흥왕(1), 김유신(3), 무열왕(3), 을지문덕(3), 양만춘(1), 무령왕(1), 왕인(3), 아직기	18

21) 송준영·이창욱, 「중학교 국사교육에 있어서 효과적인 인물지도와 접근방안」, 『역사교육』 22, 1977, p.62.

	(1)	
통일신라 · 발해	성덕대왕(1), 대조영(1), 원효(3), 장보고(2), 견훤(7), 궁예(5)	6
고려	왕건(11), 최승로(3), 강감찬(8), 서희(7), 윤관(8), 의천(2), 소손녕(3), 공민왕(1), 이색(1)	9
조선 및 대한제국	이성계(9), 태종(1), 세종대왕(13), 세조(4), 성종(1), 이종무(1), 장영실(1), 김득신(1), 이순신(7), 이율곡(1), 선조(1), 광재우(2), 김시민(1), 고경명(1), 김천일(1), 조현(2), 인조(2), 효종(4), 이완(1), 박제가(3), 홍대영(2), 김정호(2), 정약용(3), 순조(1), 정조(1), 이승훈(2), 철종(1), 최제우(6), 최시형(1), 김홍도(1), 고종(8), 흥선대원군(15), 양헌수(3), 어재연(2), 한성근(1), 명성황후(8), 김옥균(4), 서재필(3), 박영효(1), 전봉준(1), 최익현(1), 민영환(1), 장지연(2)	48
일제	노응규(1), 신돌석(2), 유인석(1), 임병찬(1), 민종식(1), 민공호(1), 이소응(1), 이강년(1), 홍범도(2), 안규홍(2), 안창호(3), 이승훈(2), 박은식(2), 신채호(1), 황현(1), 주시경(2), 김홍집(1), 김구(7), 김좌진(4), 이봉창(4), 윤봉길(8), 유관순(4), 조만식(1), 지정천(1), 안중근(2), 이토 히로부미(1)	26
현대	이승만(6), 김일성(1), 박정희(2)	3
계	111	

<표 3> 시대별 수록 인물의 빈도 분석 결과를 보면 5회 이상의 빈도를 나타낸 인물은 전체 19명으로 15.3%이다. 그 중에서 조선시대(대한제국포함)가 7명으로(이성계9, 세종대왕13, 이순신7, 최제우6, 흥선대원군15, 고종8, 명성황후8) 가장 많고, 고려시대는 4명(왕건11, 강감찬8, 서희7, 윤관8), 삼국시대는 3명(광개토대왕8, 진흥왕5, 장수왕5), 통일신라·발해와 일제시대는 각각 2명, 현대 1명 등이다. 5회 이상의 빈도를 나타낸 인물들은 대부분 왕이나 왕족 그리고 정치가나 군인들로 나타났다.

역사적 인물 중에서 빈도가 높게 나타난 인물은 조선시대의 흥선대원군(15)과 세종대왕(13), 고려시대의 왕건(11)으로 왕(족)인 것은 왕의 직접적인 활동과 함께 다른 인물의 활동이 이루어진 시대로서 표현된 왕의 사례도 함께 포함된 까닭이다.

〈표 11〉 영역별 인물 분석표 - 제 7차 교육과정 사회과 교과서

영역구분	수록된 인물	인물 수
왕 및 왕족	단군왕건, 고주몽, 박혁거세, 온조, 김수로왕, 소수림왕, 광개토대왕, 근초고왕, 진흥왕, 장수왕, 법흥왕, 무열왕, 문무왕, 무령왕, 성덕대왕, 대조영, 견훤, 궁예, 왕건, 공민왕, 이성계, 태종, 세종(대왕), 세조, 성종, 선조, 인조, 효종, 순조, 정조, 철종, 고종(황제), 흥선대원군	33
정치가·군인	김유신, 을지문덕, 양만춘, 장보고, 최승로, 강감찬, 서희, 윤관, 이종무, 이순신, 이이(율곡), 광개우, 김시민, 고정명, 김천일, 조현, 권율, 유성룡, 정문부, 이완, 양현수, 어재연, 한성근, 김옥균, 서재필, 박영효, 김홍집, 김구, 조만식, 이승만, 김일성, 박정희	32
예술가	김홍도, 이색, 김득신	3
기술자	장영실, 김정호, 정약용, 홍대용, 박제가	5
학자	왕인, 아직기	2
독립운동가	최익현, 장지연, 민영환, 노응규, 신돌석, 유인석, 임병찬, 민종식, 민궁호, 이소응, 이강년, 홍범도, 안규홍, 안창호, 이승훈, 박은식, 신채호, 황현, 주시경, 김좌진, 지정천, 안중근, 이봉창, 윤봉길	24
종교가	원효, 의천, 사명대사, 서산대사, 이승훈, 최제우, 최시형	7
여성	명성황후, 유관순	2
외국인	소손녕, 이토 히로부미	2
기타	전봉준	1
계	111	

〈표 4〉 영역별 인물 분석표를 살펴보면 교과서에 수록된 인물이 대부분 왕(왕족), 정치가·군인, 그리고 독립운동가들로서 정치 활동과 관련된 인물이 비율이 높고, 상대적으로 여성 인물과 문화사적인 인물의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나. 연구 제재 선정

6학년 1학기 사회 교과서에 등장하는 인물 중, 본 연구에서 학습 모형에 적용할 대상으로서 선정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배경지식 형성 과정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탐구·조사 활동을 할 수 있을 만큼 자료가 풍부한 인물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둘째, 학생들이 관심과 흥미를 보이는 인물로서 미디어 매체에서 드라마나 영화, 다큐멘터리 등의 목적으로 자주 소재로 다루었던 인물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셋째, 아동들의 감정 이입을 자극할 수 있도록 역사적 갈등 상황을 담고 있는 제재의 인물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위의 기준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일제 강점기 시대의 항일 독립 운동가를 인물사 주제로 하였으며 인물사 학습의 주제 인물로서 일제 강점기 때의 항일 독립 운동가 중에서 교과서에서 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신돌석, 안창호, 김구를 선정하였다. 항일 독립 운동가의 경우, 교과서에 제시된 인물 중 세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시기별로 봤을 때에도 일제 강점기 때의 인물의 비중은 조선 시대 다음으로 많다. 따라서 아동들이 배경 지식을 형성하기 위한 참고 자료가 많을 뿐 아니라, 아동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미디어 매체나 위인전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는 소재이다. 또한 인물사 학습과 관련하여 조사와 탐구를 통해 배경 지식을 형성하는 단계에서 아동들이 수집하는 자료가 역사적 갈등 상황을 담고 있을 때 학습자의 감정 이입을 자극하는데 좀 더 효과적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일제 강점기라는 역사적 위기의 순간에 발생한 수많은 갈등 상황들은 감정이입적 사고를 자극하는 데 도움이 된다²²⁾. 일제 강점기 때에는 그동안 누적되어 온 여러 모순과 역사적 과제들이 한꺼번에 표출되는 역사적 격동기라는 점에서 아동들의 감정이입적 사고를 자극하는 데 용이하므로 이를 선택하

22) 이원순, 이정인, 『역사교육의 이론과 실제』, 정음문화사, 1985, pp.168-169.

게 되었다.

각 인물에 따른 역사 일기 쓰기 수업의 주제 및 맥락적 감정이입을 위한 학습 목표는 <표 5>와 같다.

<표 12> 인물에 따른 역사 일기 쓰기 주제의 맥락적 감정이입을 위한 학습 목표

역사적 인물	주제	맥락적 감정이입을 위한 학습 목표
신돌석	을사조약 이후의 의병운동	· 을사조약 이후에 의병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역사적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 · 평민 의병 대장인 신돌석이 의병 운동을 전개했던 의도를 추론할 수 있다.
안창호	민족의 힘을 기르기 위한 노력	· 일제의 침략에 대항하기 위한 방법으로 교육 활동을 전개하였던 안창호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김구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수립	· 민족지도자들이 대한민국 임시 정부를 수립한 의도를 대한민국 임시 정부를 수립한 당시 국내외 상황에 비추어 이해할 수 있다. · 김구가 한민애국단을 조직한 의도를 당시의 국내외 상황에 비추어 추론할 수 있다.

역사일기를 작성하기 위하여 4-5명씩 그룹을 짜서 진행하였다. 개인적인 생각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일기를 그룹을 짜서 진행한 것은 역사적 사실을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검증된 역사적 사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개인이 혼자서 역사적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검증하는데 들어가는 많은 노력과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이다. <표 5>의 각 주제에 대하여 역사일기 작성 수업은 총 6차시에 걸쳐서 수행할 수 있다. 각 차시별 수업 과정은 <표 6>에 나타나 있다.

<표 13> 역사일기 쓰기 지도 과정

단 계	차 시	학습 목표	학습 활동		비고
			교사	학생	
1	1	감정이입적 사고를 통해 역사 바라보기	- 역사적인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 알아보기 - 감정이입적 역사 이해의 개념 및 방법 안내하기	- 역사적인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양함을 이해 - 역사적인 인물에 감정이입하여 인물의 의도와 역사적 상황이 사건에 주는 연관성을 이해	학생은 역사 일기쓰기의 방법을 이해
	2	역사일기를 작성하는 방법 이해	- 역사일기를 작성하는 방법 제시 - 학생 4-5명씩 그룹	역사일기 작성법을 이해	
2	3	배경 지식 형성	- 역사일기의 주제 설정 - 역사일기 작성을 위하여 역사적 자료 수집 가능한 곳 제시	설정된 주제에 관련된 역사적 자료 수집 및 그룹원들 간의 토론에 의한 수집된 자료의 검증	학생은 역사적 사료의 출처 표시 및 검증
	4	감정이입을 통한 배경 지식의 활성화를 거쳐, 상상적 재구성 활동인 역사 일기 작성	- 수집한 배경 지식으로부터 감정이입적인 사고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질문 - 자료를 바탕으로 역사적 상상력이 포함된 역사 일기 작성 유도	- 수집한 배경 지식으로부터 인물에 대한 감정이입적인 사고 - 활성화된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개인의 주관적 상상력이 포함된 역사 일기를 작성	
3	5	역사일기의 발표 및 오류 보완	- 역사일기를 발표하며 작성된 일기의 오류 수정 - 역사일기를 작성하면서 얻은 경험 및 지식을 학생 모	역사일기를 발표하며 자신의 역사 일기의 오류를 찾아내며 다른 학생의 역사일기를 통하여 역사적 사고	교사는 모든 학생이 경청하고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두가 공유하도록 유도	력 향상	
	6	일기쓰기를 통한 역사적 인물에 대한 감정이입적 이해	역사적인 인물에 대한 시대적 연관 성과 의도를 파악 함으로서 시대상 이해 및 설명	역사적인 인물에 대한 시대적 연관 성과 의도를 파악 함으로서 시대상 이해 및 설명	인물사를 통한 시대의 이해

위의 <표 6>의 지도단계는 3단계 6차시로 나누어진다. 1단계는 감정이입적 역사일기를 작성하기에 앞서 역사적인 인물에 대한 감정이입적 이해가 무엇이며 감정이입적 이해를 위한 역사 일기 쓰기 방법에 대한 사전 지식을 습득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중요시되는 것은 학생이 어떻게 역사적인 인물에 대한 감정이입적 역사일기를 작성할 것인가를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나 1단계는 처음 역사일기 쓰기를 도입할 때 설명이 필요한 부분으로 그 후 수업에서는 생략할 수 있다.

2단계는 객관적 자료의 수집 및 이 자료를 바탕으로 역사일기를 작성하는 단계로 감정이입적 사고를 통한 역사일기의 가장 중요한 단계이다. 여기서는 역사적 사고력과 경험이 부족한 학생들이 자료 수집의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으므로 교사가 역사적 자료를 찾을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역사 서적, 고문서 등을 제시해주며 서로의 자료를 찾을 수 있도록 4-5명 씩 그룹을 짜준다. 역사적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한 후, 역사적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을 재구성하며 자기 자신의 감정이입을 통한 역사적 상상력을 발휘하여 역사일기를 작성한다. 주의해야 될 점은 이들 역사 일기가 시대성과 공감성을 가지도록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 개인의 감정을 잘 나타내도록 한다.

3단계에서는 각 학생이 역사일기를 발표하고 교사가 발표된 역사일기의 수정 및 보완을 해준다. 이 과정에서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역사일기 뿐만

이 아니라 다른 학생의 역사일기를 들으면서 역사적 지식을 획득하며, 역사일기 쓰기를 바탕으로 얻은 지식을 통하여 시대상을 이해하게 한다.

각 단계는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전 단계의 학습이 잘 이루어질수록 최종 학습 결과물인 역사 일기의 수준이 더 높아진다. 이러한 학습 과정을 거치면서 학생들은 인물에 대해 감정이입적 역사 이해를 잘 할 수 있게 된다.

4. 역사일기 쓰기 지도의 실제

진술한 지도 단계 중 2단계와 3단계를 중심으로 한 각 주제별 세부 지도안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주제는 신돌석을 제재로 한 인물사 학습이며, ‘을사 조약 이후의 의병 운동’을 주제로 4월 2주에 이루어졌다.

〈표 14〉 주제 1 수업 개관

주제1. 을사조약 이후의 의병 운동	
1. 관련 단원	3-1-1 총과 펜을 들어 싸운 조상들
2. 학습 목표	· 을사조약 이후에 의병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시대적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 · 평민 의병 대장인 신돌석이 의병 운동을 전개했던 의도를 추론할 수 있다.
3. 주제 개관	6학년 학생들은 역사적 사실을 전체적인 흐름으로 파악하기보

4. 자료	다는 하나의 단편적인 사건이나 인물 위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청·일 전쟁, 러·일 전쟁의 경과와 을사조약까지의 국권 침탈 과정을 서로 연관지어 알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수업에서 학생들은 신돌석이라는 인물에 대한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추론하고, 더불어 의병 운동을 전개하였던 신돌석의 의도, 더 나아가 우리 민족의 의병 운동이 이루고자 했던 바가 무엇인지를 역사 일기 쓰기를 통해 감정이입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교사: 교과서, 의병 활동 지도 자료, 신돌석 장군에 대한 애니메이션 자료, 이야기 자료(부인들의 나라 근심), 읽기 자료 등 학생: 신돌석 장군에 대한 조사 자료(사료, 위인전, 역사 신문, 인터넷 검색 결과 등)
-------	--

〈표 15〉 주제 1 교수 - 학습 과정안

단계	시간	교수-학습 내용
1. 역사 일기 주제 설정	5분	◎의병 대장 신돌석의 활약을 역사 일기로 써 보자.
2. 배경 지식 형성	15분	◎을사조약에 대해 조사한 내용 발표하기 ◎을사조약 이후에 의병 운동이 전개되었던 까닭 말해보기
3. 감정이입을 통한 배경 지식의 활성화	20분	◎신돌석에 대해 조사한 내용 발표하기 ◎의병대장으로서 신돌석의 활동 발표하기 ◎청일전쟁(1894)과 러일전쟁(1904)이 일어나게 된 배경 이야기하기 ◎ 을사조약을 둘러싼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알아보기 - 을사조약 체결과 관련된 ‘부인들의 나라 근심’ 이야기 듣기 t: 을사조약에 대해 부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t: 부인들이 남편을 나무라는 행동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

		t: 을사조약의 내용 중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 가장 큰 위협이 되었던 것을 무엇이었을까? t: 조선의 관리들이 을사조약의 체결을 막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 을사조약 이후, 의병 운동을 전개하였던 배경 생각하기 - 신돌석에 대한 이야기 듣기 t: 신돌석이 의병 운동을 결심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었나? t: 신돌석이 일으킨 의병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었을까? t: 의병 운동에 참여했던 일반 농민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t: 만약 신돌석이 의병 운동을 끝까지 전개할 수 있었다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t: 신돌석이 일본군과 싸우는 과정을 지켜보던 조선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t: 내가 만약, 신돌석이 되어 의병대장으로서 일본에 맞서는 전쟁을 벌이는 입장이라면 나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전쟁에 임했을까?
4. 상상적 재구성	20분	◎ 감정이입적으로 활성화된 배경 지식을 참고로 역사 일기 쓰기 - 의병 대장 신돌석의 모습 상상해서 그리기 - 신돌석과 부하들의 대화를 상상해서 주고 받기 - 신돌석이 된 내가 의병 운동을 하던 어느 날의 일을 일기로 써 보기 - 시대성과 생동감이 느껴지도록 쓰기
5. 평가	15분	◎ 역사 일기 발표하기 ◎ 역사 일기의 오류 수정 및 지식 공유 - 친구들의 일기에서 잘 된 부분을 찾아보자 - 잘 못 표현된 부분이 있는가? - 가장 재미있던 부분을 찾아보자. - 나의 일기에서 고쳐야 할 부분이 있는가?
6. 피드백	5분	◎ 역사 일기의 오류 수정하기 ◎ 감정이입적 배경 지식의 활성화 단계로의 피드백

이 수업은 80분 2차시에 걸쳐 진행하였다. 학생들이 가장 흥미를 보인 것은 신돌석에 얹힌 설화와 신돌석의 의병이 일본군에게 타격을 주는 과정을 발표할 때였다. 역사 일기 쓰기는 일기 대신에 종종 써왔던 것이긴 했지만 이렇게 스스로 자료를 조사하고 선별하여 감정이입적으로 일기를 쓰는 건 해 본 적이 없기에 자료 조사에 대한 과제에 소홀한 아이들도 눈에 띄었다.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인물에 대해 감정이입적으로 이해하는 데에도 시간이 많이 걸려서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은 얻기 힘들었다. 다만, 다른 친구들의 발표를 듣는 것은 유용했는데, 발표를 들으면서 자신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내용이 나오면 감탄을 하기도 하고 틀린 부분을 서로 지적하거나 질문하는 것을 보면서 또래 집단끼리도 피드백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두 번째 주제는 안창호에 대한 조사 활동을 바탕으로 일제의 침략에 맞서 민족의 힘을 기르기 위한 노력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아보는 수업이었으며 이는 4월 4주에 이루어졌다.

〈표 16〉 주제 2 수업 개관

주제2. 민족의 힘을 기르기 위한 노력	
1. 관련 단원	3-1-1 총과 펜을 들어 싸운 조상들
2. 학습 목표	• 일제의 침략에 대항하기 위한 방법으로 교육 활동을 전개하였던 안창호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 안창호가 교육을 통해 민족의 힘을 기르려는 활동이 당시 사람들의 의식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추론할 수 있다.
3. 주제 개관	6학년 학생들은 민족 지도자들이 교육, 언론, 학문 분야에서 국

4. 자료	민을 계몽시키는 것이 일제의 침략에 대항하기 위한 활동으로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후의 일제 강점기를 겪게 되는 과정에서 이들 활동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기도 한다. 따라서 본 수업에서는 안창호라는 인물에 대한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교육 분야에서 민족의 힘을 기르는 것이 일제의 침략에 대항하는 데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파악하고,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안창호와 같은 지식인들의 노력이 일반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추론하고자 한다. 일제의 침략에 대항하는 방법으로서 안창호의 노력을 감정이입적으로 추체험하여 역사 일기를 쓰는 활동을 통해 시대적 배경 및, 민족의 힘을 기르기 위한 노력에 대한 의미를 알아내는 것이 또한, 본 수업의 목적이기도 하다. 교사: 교과서, 사진 자료(대성학교, 안창호 사진), 안창호에 대한 일화 애니메이션 자료 학생: 안창호에 대한 조사 자료(사료, 위인전, 역사 신문, 인터넷 검색 결과-도산 안창호 온라인 기념관 -http://www.ahnchangho.or.kr- 등)
-------	---

〈표 17〉 주제 2 교수 - 학습 과정안

단계	시간	교수-학습 내용
1. 역사 일기 주제 설정	5분	◎도산 안창호의 활동을 역사 일기로 써 보자. - 안창호 사진, 대성학교의 사진 보기.
2. 배경 지식 형성	15분	◎도산 안창호에 대해 조사한 내용 발표하기 ◎도산 안창호가 교육을 통해 민족의 힘을 길렀던 활동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하기 ◎도산 안창호와 함께 애국 계몽 운동에 앞장선 지식인들에 대한 조사 결과 발표하기

3. 감정이입을 통한 배경 지식의 활성화	20분	◎ 을사조약 이후, 애국계몽운동을 전개하였던 배경 생각하기 - 안창호에 대한 일화 듣기 - t: 안창호가 학교를 세워서 국민을 계몽하기로 결심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었나? - t: 안창호가 세운 학교에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 t: 당시의 사회적인 상황으로 보았을 때, 안창호의 활동에 대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 t: 안창호는 어떻게 교육을 통해 민족의 힘을 기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까? - t: 만약 내가 안창호가 세운 학교의 학생이었다면 나는 어떤 공부를 하면서 민족의 힘을 기르려고 노력했을까? - t: 내가 안창호가 되어 수많은 국민들 앞에서 강연회를 열었다면 나는 어떤 말을 하고 싶은가?
4. 상상적 재구성	20분	◎ 감정이입적으로 활성화된 배경 지식을 참고로 역사 일기 쓰기 - 안창호의 강연 모습을 상상해서 그리기 - 안창호에게 질문을 한다면, 어떤 내용을 묻고 싶은지 상상해서 역할극하기 - 안창호가 학교를 세우기로 결심했을 때의 심정을 일기로 써 보기 - 시대성과 생동감이 느껴지도록 쓰기
5. 평가	15분	◎ 역사 일기 발표하기 ◎ 역사 일기의 오류 수정 및 지식 공유 - 친구들의 일기에서 잘 된 부분을 찾아보자 - 잘 못 표현된 부분이 있는가? - 가장 재미있던 부분을 찾아보자. - 나의 일기에서 고쳐야 할 부분이 있는가?
6. 피드백	5분	◎ 역사 일기의 오류 수정하기 ◎ 감정이입적 배경 지식의 활성화 단계로의 피드백

두 번째 수업에서는 아동들의 수업 참여도가 높아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선 수업의 과정에 좀 더 익숙해졌기 때문인지 자신이 쓴 역사 일기를 발표하는 데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발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가지고 잘된 부분과 잘못된 부분을 찾는 데에도 관심을 많이 보였다. 그러나 안창호에 대한 배경 지식을 감정이입적으로 활성화하는 데 계획했던 것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으며 여전히 현재적인 관점에서 안창호의 의도를 파악하려는 경향이 많이 보였다. 안창호가 국민들을 계몽시켜야 했던 이유를 나라의 힘을 키우기 위한 목적이라는 관점으로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과 연관시키기 보기보다는 일제의 침략과 상관없이 안창호를 순수한 교육자의 모습으로만 보려는 아이들도 많았는데 이는 아이들이 주로 조사한 매체가 인터넷이고,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정보들 중에서 아동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학교를 세웠다’, ‘많은 사람을 계몽시켰다’ 정도의 단편적인 내용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였다. 심지어, 학교를 세우고 국민들을 교육시키는 것이 왜 민족의 힘을 기르기 위한 노력이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당시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광범한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하고, 교육을 한다는 상황에 대한 오늘날과 과거의 인식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는 모습을 보였는데, 맥락적 이해에 도달하기까지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세 번째 주제는 김구에 대한 조사 학습을 통해 대한 민국 임시 정부를 세운 까닭과 그 활동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었으며 이는 5월 1주에 이루어졌다.

〈표 18〉 주제 3 수업 개관

주제3.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수립

1. 관련 단위	3-1-1 대한 독립 만세, 한국 광복군 만세
2. 학습 목표	· 민족지도자들이 대한민국 임시 정부를 수립한 의도를 대한민국 임시 정부를 수립한 당시 국내외 상황에 비추어 이해할 수 있다. · 김구가 한민애국단을 조직한 의도를 당시의 국내외 상황에 비추어 추론할 수 있다.
3. 주제 개관	이 제재에서는 일제 강점기에 우리 조상들이 벌인 무장 독립 운동과 나라의 힘을 기르기 위해 전개된 실력 양성 운동에 대해 학습한다. 특히 대한 민국 임시 정부의 수립과 활동, 무장 독립 운동에 대해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주석이었던 김구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시대적인 상황과 사건의 연관성을 파악하여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수업에서는 김구에 대한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대한 민국 임시 정부 수립의 의미와 대한 민국 임시 정부의 활동, 임시 정부의 활동이 국민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파악하고, 당시의 국내외의 정세로 보았을 때 김구의 활동과 판단이 가지고 있는 당위성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추론하고자 한다. 일제의 침략에 대항하는 방법으로 무장독립운동을 선택한 김구의 신념과 활동 및 독립운동가로서의 노력을 감정이입적으로 추체험하여 역사 일기를 쓰는 활동을 통해 시대적 배경 및, 민족의 힘을 기르기 위한 노력에 대한 의미를 알아내는 것이 또한, 본 수업의 목적이기도 하다.
4. 자료	교사: 교과서, 사진 자료(대한민국 임시 정부 청사, 김구 사진, 윤봉길 사진, 이봉창 사진), 김구에 대한 대한 일화 애니메이션 자료 학생: 김구에 대한 조사 자료(사료, 위인전, 역사 신문, 인터넷 검색 결과-백범 기념관-http://www.kimkoomuseum.org- 등)

〈표 19〉 주제 3 교수 - 학습 과정안

단계	시간	교수-학습 내용
----	----	----------

1. 역사 일기 주제 설정	5분	◎백범 김구의 활동을 역사 일기로 써 보자. - 백범 김구의 사진, 윤봉길·이봉창의 사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청사 사진, 대성학교의 사진 보기.
2. 배경 지식 형성	15분	◎백범 김구에 대해 조사한 내용 발표하기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수립 과정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하기 ◎대한민국 임시 정부에서 일제로부터의 독립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하였는지 살펴보기 ◎백범 김구가 한국광복군을 조직하여 펼쳤던 대일전쟁에 대해 발표하기
3. 감정이입을 통한 배경 지 식의 활성화	20분	◎ 대한 민국 임시 정부의 주석으로서 백범 김구에 대해 조명하기 - 김구에 대한 일화 보기(애니메이션 자료) t: 대한 민국 임시 정부의 주석으로서 백범 김구의 활동은 당시 독립 운동을 하던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t: 김구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을 통해 의도했던 목적은 무엇이었나? t: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외 활동은 당시 국내외 정세로 보았을 때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가? t: 왜 김구는 1940년대 들어 한국광복군을 창설하여 기존의 활동에서 방향을 틀어, 연합군과 함께 대일 전쟁에 참전하였을까? t: 유봉길과 이봉창의 희생이 대한민국의 독립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만약 내가 김구라면 이들의 희생을 어떻게 생각하였을까? t: 만약 내가 김구가 되어 일제의 침략에 맞선 독립운동가들 앞에서 연설을 한다면, 나는 어떤 말을 하고 싶은가?
4. 상상적 재 구성	20분	◎감정이입적으로 활성화된 배경 지식을 참고로 역사 일기 쓰기

		- 김구가 ‘국내외 동포에게 고향’을 낭독하는 장면을 상상하며 읽기 - 일제의 침략에 대항하는 김구에게 질문을 한다면, 어떤 내용을 묻고 싶은지 상상해서 역할극하기 - 운봉길을 떠나보내며 돌아섰을 때 김구의 심정을 일기로 써 보기 - 대한민국의 독립을 확인한 김구의 심정을 일기로 써 보기 - 시대성과 생동감이 느껴지도록 쓰기
5. 평가	15분	◎역사 일기 발표하기 ◎역사 일기의 오류 수정 및 지식 공유 - 친구들의 일기에서 잘 된 부분을 찾아보자 - 잘 못 표현된 부분이 있는가? - 가장 재미있던 부분을 찾아보자. - 나의 일기에서 고쳐야 할 부분이 있는가?
6. 피드백	5분	◎역사 일기의 오류 수정하기 ◎감정이입적 배경 지식의 활성화 단계로의 피드백

본 수업 역시 2차시에 거쳐 진행되었다. 대한민국의 임시 정부를 세워서 활동을 했다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아이들도 있었는데, 이는 임시정부가 했던 활동들이 일제의 침략에 직접적으로 맞선 활동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듯했다. 특히 6학년 아이들은 임시정부의 대외활동 - 김규식을 파리 강화 회의에 민족 대표로 파견하여 한국의 독립을 주장하는 등 - 에 대해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세 번째 수업은 이전의 수업에 비해 보다 적극적으로 감정이입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특히 운봉길과 이봉창의 의거와 관련해서 김구의 의도와 인간적인 고뇌에 대해 마치 스스로가 김구가 된 것처럼 마음이 아프다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이는 앞서, 역사적 갈등 상황을 접했을 때 학습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감정 이입을 한다는 관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역사 일기를 발표할 때에 앞선 수업에 비해 좀 더 다양한 내용과 관점에서 쓴 일기들이 돋보였으며 잘못

된 부분을 지적하거나 잘 된 부분을 칭찬하는 데 있어 자신들이 준비한 배경 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5. 역사일기 쓰기 학습 결과 및 효과

인물사와 관련해서 역사 일기를 쓸 때에 중요한 것은 아동들이 조사활동을 통해 확보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역사적 상상력을 발휘하여 감정이입을 하는 것이다. 특히 시대성과 공감성을 가진 일기를 발표할 때에 다른 아동들이 현실감을 느껴야 한다. 이러한 것을 기준으로 감정이입적 역사일기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 (i) 부정확한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역사를 재구성한 역사일기
- (ii) 역사적 사실만을 나열하는 역사일기
- (iii)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시대성과 공감성을 포함한 역사일기
- (iv) 역사일기 내에서 역사적 사실의 내면을 이해하며, 시대성과 공감성을 포함하는 역사 일기

첫 번째로 부정확한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역사일기를 재구성한 예는 아래와 같다.

..... 우리나라에 갑자기 일본군이 쳐들어 온 지 꽤 오래되었다. 지금 우리나라에 모든 사람들이 우리 나라를 되찾기를 원한다.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모든 일이 잘 안된다. 벌써 죽은 사람도 한 두 명이 아니다. 나는 지금

부터라도 독립을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넓은 공원에서 사람들과 독립을 하기 위해 독립운동을 하였다. 열심히 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우리 나라를 되찾고 싶다.....

..... 신돌석인 나는 오늘 나의 부하들을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 우리 옛적에는 여러나라가 있었는데 고려나 조선은 외침을 막아 우리 나라를 구했는데 우리는 왜 일본을 막아내지 못하다니. 우리도 빨리 다른 나라의 침입을 막고 모두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위의 일기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김구와 신돌석이라는 역사적인 인물을 둘러싼 시대적인 배경에 대한 서술이 애매모호하여, 일제 강점기의 어느 시점에서 이들 이들 인물이 활동하였는지에 대한 근거를 대지 못하고 있다. 또한, 감정이입적인 면에서도 그 당시의 독립운동가라면 으레 그러려니 하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생각과 행동들을 서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역사적인 사실만을 나열한 역사 일기로 다음과 같다.

..... 내 이름은 김구 나의 본관은 안동이다. 그리고 나는 황해도 해주에서 출생하였다. 내 나이 15세 한학을 배우고, 1893년, 동학에 입교하여 난 접주가 되고 이듬해 팔봉도 접주에 임명되어 해주에서 동학 농민 운동을 지휘하다 일본에게 쫓겨 1895년 만주로 피신하여 의병단에 가입했다. 또 이듬해 귀국하여 난 일본에게 살해당하신 명성황후 마마의 원수를 갚고자 일본 중위 쓰치다를 살해하여 체포를 당하여 사형을 선고 받았으나 고종의 특사로 감형되었다.....

위의 일기는 마치, 백과사전에서 찾은 김구의 일대기를 그대로 옮겨 쓴 것과 같은 모습을 보인다. 비록 마치 자신이 김구가 된 것처럼 1인칭의 형식으로 일기를 쓰긴 했지만 역사적인 상상력이나 감정이입적인 사고의 단계는 보이지 않고 있다.

세 번째의 예로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시대성과 공감성을 포함하여 감정이입적으로 사고가 엿보이는 역사 일기이다.

..... 아침 나절, 옆집 순영이와 넷가에서 빨래를 하면서 무서운 장면을 보았다. 뻣뻣하고 몸에 붙는 이상하게 생긴 옷을 입은 사내가 아랫마을 명구 아버지에게 무어라고 소리를 치고 있었다. 빨래 방망이도 내동댕이치고 구경하러 갔는데 벌써 동네 사람들 절반은 몰려든 것 같았다. 이상한 사내는 허리춤에 길쭉한 칼도 차고 있었는데 입을 열 때마다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뭔가 못된 말을 하는 것 같았다. 나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순영이 말로는 그게 왜놈들 말이라고 한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서로 몇 번 손가락질을 하더니 다짜고짜 왜놈 사내가 명구 아버지의 뺨을 때렸다. 나이도 어린 왜놈 사내가 명구 아버지의 뺨을 때리자 우리는 화가 나고 안타까워서 주먹이 꽉 쥐어졌다. 요즘 동네마다 왜놈들이 조선 땅에서 도둑질도 하고 못된 짓을 한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이렇게 실제로 보는 건 처음이다. 저런 놈들은 신돌석 장군이 나타나서 무시무시하게 혼을 내줘야 겁을 먹고 도망을 칠 것이다. 어서 신돌석 장군이 나타나서 저 못된 왜놈을 몽땅 쫓아내줬으면 좋겠다.....

..... 오늘 윤봉길이 사형 선고를 받고 처형을 당했다. 4월 20일, 윤봉길은

홍코우 공원에서 열린 일본 천황의 생일 경축식장에서 폭탄을 던져 일본군 최고 사령관 시라카와 요시노리 대장, 상하이 일본 거류민단장 등을 죽이고, 노무라 해군 대장과 시게미쓰 공사를 비롯하여 많은 일본군 병사들을 부상하게 하는 등, 일제 침략자들에게 큰 공격의 성과를 올렸지만 그 자리에서 도망칠 수는 없었다. 아마, 윤봉길은 도망치지 않을 생각이었을 것이다. 윤봉길의 사형 선고 소식에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프지만 나는 슬픔과 고통 속에 잠겨 있는 대신, 그의 값진 희생에 경의를 표할 것이다. 우리 한애국단은 일제 침략자를 처단하여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회복할 그날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용기있고 애국심이 투철한 젊은이들의 연이어 희생되었고 그에 비해 일본 침략자의 피해는 미미하니 억울하고 슬픈 마음이 든다.....

위의 일기를 살펴보면 재구성된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이상한 사내는 허리춤에 길쭉한 칼도 차고 있었는데 입을 열 때마다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뭔가 못된 말을 하는 것 같았다’와 같이 당시에 생경했던 일본 군인의 모습을 묘사한 점에서 시대적인 공감성이 느껴지며, ‘나이도 어린 왜놈 사내가 명구 아버지의 뺨을 때리자 우리는 화가 나고 안타까워서 주먹이 짝 쥐어졌다’에서 보이듯, 상황에 대한 감정이입적인 사고가 돋보이는 것을 볼 수 있다. 또, ‘그러나 우리의 용기있고 애국심이 투철한 젊은이들의 연이어 희생되었고 그에 비해 일본 침략자의 피해는 미미하니 억울하고 슬픈 마음이 든다’에서 당시 목적을 달성하였지만 마음의 고통을 겪고 있는 김구의 심정에 감정이입을 하여 사건을 이해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일기들에서는 표현하고 있는 역사적 상황에 대한 맥락적 이해가 보이지는 않는다.

다섯 번째로 역사일기 내에서 역사적 사실의 인과 관계를 포함하여 역사적인 인물에 대한 시대성과 공감성이 잘 표현되어 있는 일기이다. 이러한 일기가 감정이입적인 역사 이해의 표본 단계라 할 수 있는 맥락적인 이해가 잘 드러나 있는 일기라고 할 수 있다.

..... 각기 흩어져 있던 임시 정부가 하나로 뭉쳐지는 날이 바로 오늘이다. 아침부터 마음이 설레고 있었다. 뭔가 새로운 희망이 보이는 기분이다. 3.1 운동 이후에 우리의 자주 독립을 위해 힘을 모을 중심 기관이 필요했지만 너무 곳곳에 흩어져 있었기에 힘을 모으기 힘들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마침내 이곳 상하이에서 오늘, 임시 정부를 수립하게 된 것이다. 물론 이 일이 쉬운 일은 아니다. 우리는 일본의 감시를 피해 국내와 긴밀히 연락하여 독립운동을 위해 힘을 합해야 할 것이며 독립운동자금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민족 정신을 고취하기 위해서는 국내외의 독립운동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독립신문 또한 발행해야 할 것이다.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손으로 이루어지고 또한 우리의 독립을 향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이 얼마만큼의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 걱정스럽기도 하다. 왜냐하면 만주에서 활동하는 민족 운동가들 중에는 우리의 계획에 동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심지어 우리의 임시 정부를 배격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미국에 대한 외교가 독립을 위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도움이 될지 되지 않을 지는 해보지 않고는 모를 일이다. 얼마 해보지 않고 미리부터 안 된다고 생각하여 힘을 하나로 모으지 않고 흩어지면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 뻔하기에 근심스럽다. 우리의 임시 정부는 대한민국을 하나로 만들어 진정한 자주 독립을 이룰 수 있는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 오늘 임시 정부를 연 첫 회의에서 나는 이것을 강력하게 주장할 참이다.....

..... 아침부터 몇몇 부하들이 다섯 명이나 되는 군인들을 끌고 왔다. 왜놈들의 첩자인줄 알고 잡아온 모양인데 알고 보니까 지난 8월에 군대 해산 때 흩어진 군인들인 듯 했다. 왜놈들이 군대를 해산시키고 나서도 군복을 입고 다니는 것을 보면 왜놈들에 대한 양심이 우리 못지 않은 것 같았다. 결국 그들도 우리 의병 대열에 참여하였다. 이로써 우리는 이곳 태백산 주변에서 가장 세력이 큰 의병 부대가 되었다. 나는 양반이 아닌 농민 출신이지만 수많은 조선인들의 힘을 모아 왜놈을 물리치는 의병대장이 되었고 우리 부대는 유생과 농민, 강제 해산을 당했던 군인, 스님, 심지어 도둑들 까지도 모두 한 마음으로 왜놈과 싸울 각오가 되어 있다. 12월에 유생 의병장들은 연합 의병을 결성해서 서울로 진격할 생각이라고 한다. 그러나 평민 의병장인 나는 그들 무리에 끼 수 없어 안타깝다. 나라를 지키는 데 한 마음을 모아야 할 판에 여기서도 신분의 높고 낮음을 가리다니..... 그러나 나를 비롯한 우리 부대의 모든 의병들은 한 마음으로 이곳 강원도와 경북의 접경 지대에서 일제 침략군의 발목을 잡아 그들의 욕망을 잠재울 것이다.....

위의 두 일기는 각각 김구와 신돌석의 입장에서 일기를 쓴 내용으로서 시대적 정황에 대한 공감성이 돋보인다. 앞의 일기는 임시 정부 수립의 목적과 의도 뿐 아니라 임시 정부의 수립을 두고 일어났던 민족 지도자간의 갈등을 김구의 입장에서 감정이입하여 서술함으로서 역사적인 상황에 대한 맥락적인 이해가 돋보인다고 할 수 있겠다. 뒤의 일기는 배경 지식의 습득에 노력을 많이 기울였음을 알 수 있는데 평민 의병장인 신돌석의 입장에서 1907년 8월의 군대 해산으로 인해 갈 곳을 잃은 수많은 군인들이 의병에 합류한 과정을 삼입함으로써 역사적 상황에 대한 높은 맥락적 이해 수

준을 반영하고 있다. 평민 출신의 의병장인 신돌석이 신분상 겪었을 심적 고통을 ‘그러나 평민 의병장인 나는 그들 무리에 낄 수 없어 안타깝다. 나라를 지키는 데 한 마음을 모아야 할 판에 여기서도 신분의 높고 낮음을 가리다니.....’와 같이 감정이입적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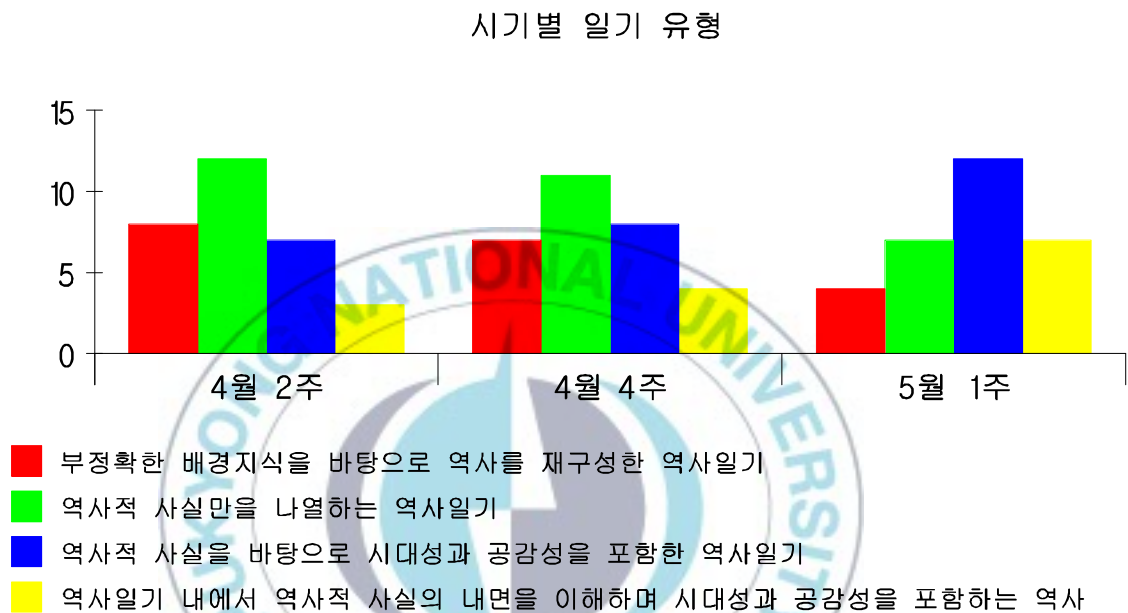
이러한 역사일기는 역사적 행위나 사건 등을 과거의 인물의 입장에서 역사적 상황에 비추어 이해하려고 하며 감정이입적인 사고를 통한 맥락적 이해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당시의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려하여 광범한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하며 오늘 날의 인식에 구애받지 않고 과거인의 인식의 틀 속에서 자신의 관점을 바꾸려고 노력한다.

시기별로 다른 학습 주제로 작성된 역사 일기의 유형을 분석해보면 <표 13>과 같다.

<표 20> 인물 학습 주제에 따른 역사일기에 나타난 일기의 유형(피드백 전)
(n=30)

학습 주제	학습 시기	시기에 따른 일기의 유형			
		부정확한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역사를 재구성한 역사일기	역사적 사실만을 나열하는 역사일기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시대성과 공감성을 포함한 역사일기	역사일기 내에서 역사적 사실의 내면을 이해하며, 시대성과 공감성을 포함하는 역사 일기
신돌석	4월 2주	8	12	7	3
안창호	4월 4주	7	11	8	4
김구	5월 1주	4	7	12	7

〈그림 2〉 인물 학습 주제에 따른 역사일기에 나타난 일기의 유형(그래프)



처음 실시되었던 수업을 통해 아동들이 쓴 역사 일기에서는 역사 일기 내에서 역사적 사실의 내면을 이해하며, 비교적 시대성과 공감성을 포함하는 일기를 쓴 아동이 10%에 불과하였다. 대부분의 학생이 과제를 통해 준비한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역사 일기를 구성하기는 했지만 잘못된 역사를 구성하거나 역사적 사실만을 나열하는데 그치는 수준이었다. 이는 본격적인 역사학습이 처음 시작되는 시기상의 문제와 ‘신돌석’이라는 인물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오는 문제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동들은 의병대장으로서 신돌석의 용맹함과 설화에서 볼 수 있는 신화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경향이

켰기 때문에 그 시대적 정황에서 의병활동의 당의성과 신돌석의 활동이 미친 영향에 대해 미미한 관심을 표현할 뿐이었다.

두 번 째로 실시되었던 수업은 처음 수업과 비교했을 때 감정이입적인 사고의 단계에 있어 미미하게나마 시대성과 공감성을 나타낸 역사일기가 많아졌는데, 이는 전시 학습에서 스스로의 일기를 발표하는 과정을 통해 역사적인 오류를 짚어내고 이를 수정하면서 감정이입적으로 일기를 쓰는 방법을 어느 정도 인식하였기 때문으로 보여졌다. 또한 ‘신돌석’이라는 인물에 비해 ‘안창호’는 아동들이 구할 수 있는 자료가 더 많았으며 설화나 전설보다는 역사적인 정황이나 시대적인 배경을 근거로 안창호의 활동을 전개시킨 위인전이나 역사 신문, 애니메이션 자료 등 아동의 눈높이에 맞는 자료를 구하기가 용이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실시되었던 수업은 앞의 두 수업보다 맥락적인 단계에 이른 역사 일기를 쓴 아동이 전체의 10%에 달했을만큼 감정이입적인 사고력이 어느 정도 신장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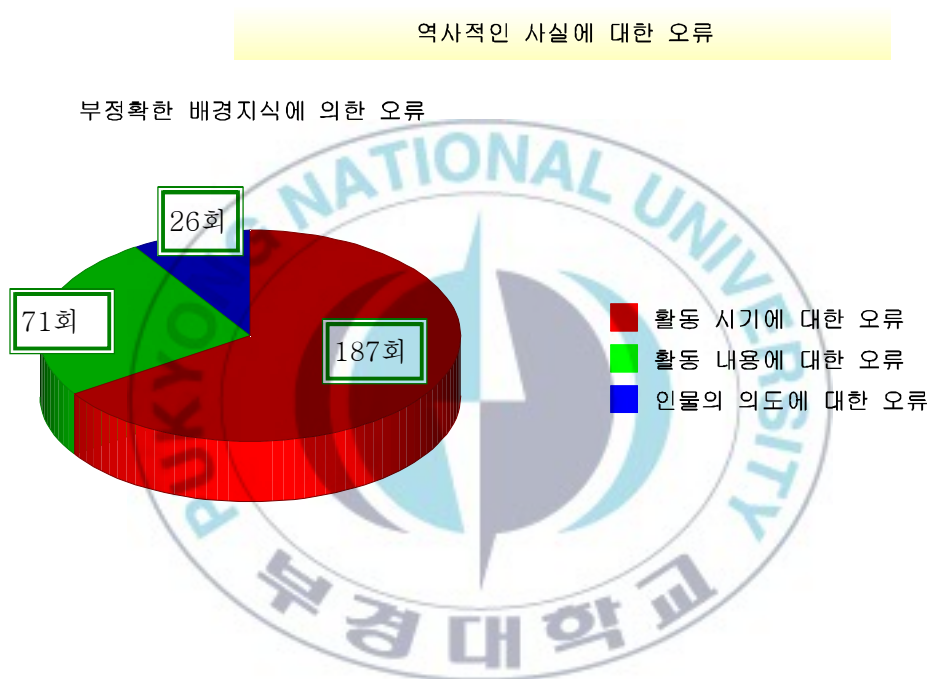
본 수업에서는 아동들이 작성한 일기의 내용에서 오류를 찾아내 수정하는 평가의 과정이 있으며 이러한 오류를 바르게 수정하기 위해서는 배경 지식의 활성화 단계로 피드백을 할 필요가 있다. 연구를 진행한 결과 아동들이 역사 일기를 작성하면서 일으킨 오류 중 배경 지식의 부정확성에 따른 오류의 내용별 빈도를 분석하면 아래의 <표 14>와 같다.

<표 21> 부정확한 배경 지식으로 인해 생긴 오류의 내용별 빈도수

학습 주제	학습시기	부정확한 배경 지식		
		활동 시기에 대한 오류	활동 내용에 대한 오류	인물의 의도에 대한 오류
신돌석	4월 2주	65회	37회	5회

안창호	4월 4주	62회	19회	14회
김구	5월 1주	59회	15회	7회

〈그림 3〉 부정확한 배경 지식으로 인해 생긴 오류의 내용별 빈도수(그래프)



배경 지식의 형성 단계에서 부정확한 자료를 참고로 하였거나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 못한 상태에서 역사 일기를 썼을 경우에 아동들이 일으킨 오류로서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인 것이 활동 시기에 대한 오류였다. 아동들은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인 배경을 을사조약이나 군대 해산과 같은 사건을 기준으로 구별하는 데 서투르며 연대기적인 사고가 발달되어 있지 않아서 생긴 오류로 생각된다. 몇몇 아동들은 신돌석이 활동하던 시기를 임진왜란 시기로 착각하는 일기를 쓰기도 했으며,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된 것이 해방 이후인 것으로 서술하기도 했다.

인물이 활동한 내용에 대한 오류는 세 개의 주제에서 30% 미만의 빈도를 보였는데 이는 인물을 둘러싸고 일어난 사건들을 서술하면서 과제로 학습했던 자료 중, 일기를 쓰는 데 필요한 자료를 옮겨 쓰다시피 쓴 아이들이 많았기 때문인 듯했다. 물론 일부의 아동들은 활동 내용을 시대적인 배경과 연관시켜 이해하려는 시도가 엿보였으나 이 또한 공감적인 이해가 부족하여 인물의 입장에서 서술하기 보다는 제3자의 입장에서 쓴 듯한 서술이 많았다.

아동들이 자신이 역사적인 인물이 되어 그의 생각이나 의도에 감정이입을 해보려는 데서 오는 오류는 앞선 오류들 보다는 빈도가 적는데, 이것은 배경지식의 활성화단계에서 인물에게 감정이입을 하는 시도를 훈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신이 그 시대를 살았던 인물인 것처럼 감정을 표출하거나 활동의 의도를 치밀하게 서술한 아동들도 일부 있었다. 다만, 몇몇 아동들의 경우는 일기 속에서 인물의 의도를 파악하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은 채, 단편적인 지식들만 나열한 경우도 있었는데, 이 경우에는 배경지식의 활성화단계로의 피드백이 요구되었다.

아동들이 작성한 역사 일기 중, 감정이입적인 사고를 통해 인물의 의도를 시대적인 상황과 연관시켜 생각하는 부분을 거의 찾아보기 힘든 일기 중, 역사적인 사실만을 나열한 일기는 전체 학생(30명) 중, <표 15>와 같은 수의 학생들이 해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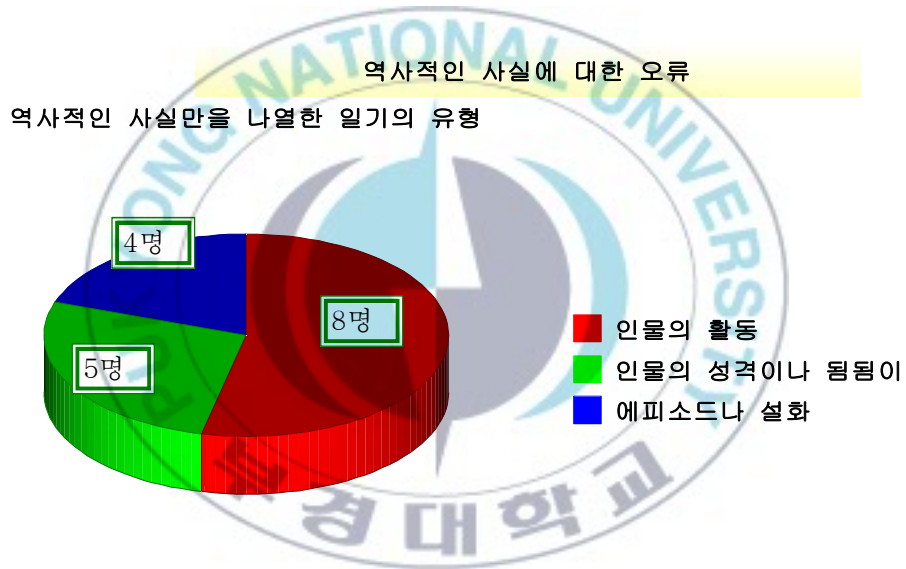
<표 22> 역사적인 사실만을 나열한 일기를 작성한 아동의 수

(n=30)

학습주제	역사적인 사실만을 나열한 일기		
	인물의 활동에 중점을	인물의 인간성 및	인물을 둘러싼

	둔 일기	뒹뒹이에 중점을 둔 일기	에피소드나 설화에 중점을 둔 일기
신돌석	3명	1명	1명
안창호	3명	2명	1명
김구	2명	2명	2명

〈그림 4〉 역사적인 사실만을 나열한 일기를 작성한 아동의 수(그래프)



역사적인 사실만을 나열한 주제에 따라 5~6명이었으며 이들 아동들이 수집한 자료가 단편적인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 참고서나 백과사전, 혹은 인터넷 지식 검색 등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인물의 활동에 대한 서술은 참고서의 내용을 고스란히 베껴 쓴 듯한 구성을 보였으며, 인물의 인간성 및 뒹뒹이를 쓴 부분은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고찰이나 감정이입 대신 도덕적인 교훈을 강조하고 있었다. 인물을 둘러싼 설화를 쓴 경우, 비

현실적인 내용을 마치 실제 일어났던 일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다. 이렇게 역사적인 사실만 나열한 일기를 쓴 아동들은 자신이 쓴 일기의 내용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내러티브 형식의 역사소설이나 위인전, 다큐멘터리 등을 자료로 선별하여 배경지식을 활성화하여 일기를 쓴 아동들이 자신이 쓴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확연히 드러났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아동들은 배경 지식의 형성 단계로 피드백을 할 때에, 지식을 형성할 수 있는 학습자료를 선별하는 과정이 추가되었다.

본 연구에서 피드백의 과정을 통해 아동들은 처음의 역사 일기에 비해 감정이입적인 역사적 사고가 향상된 수정된 역사 일기를 썼으며 피드백 이후의 아동들이 쓴 역사 일기의 유형을 피드백 전과 비교하면 (표 17)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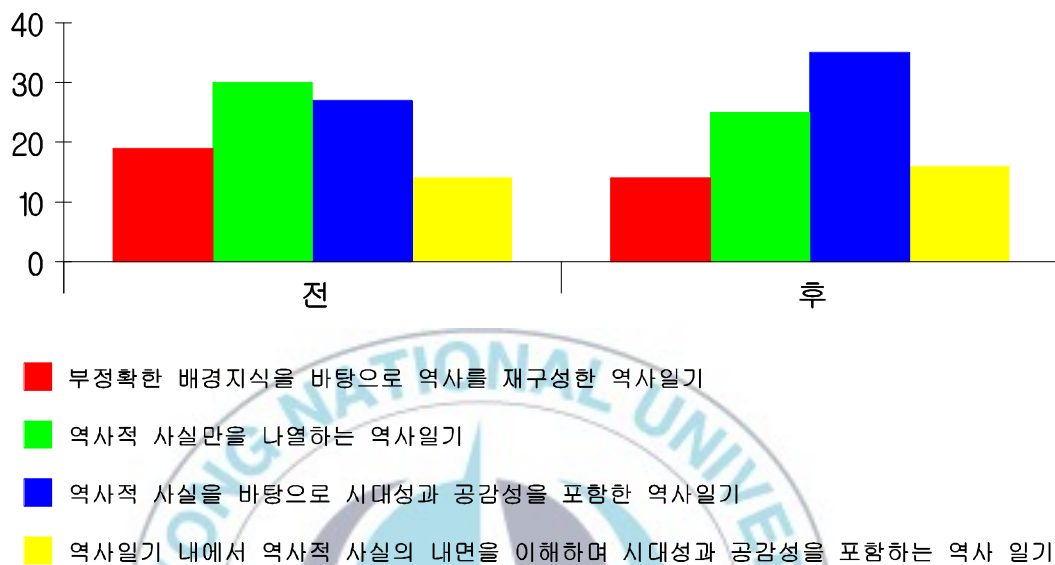
〈표 23〉 피드백 전 후 역사 일기의 유형 비교

(n=90)

피드백	1. 부정확한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역사를 재구성한 역사일기	2. 역사적 사실만을 나열하는 역사일기	3.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시대성과 공감성을 포함한 역사일기	4. 역사적 사실의 내면을 이해하며, 시대성과 공감성을 포함하는 역사일기
전	19명	30명	27명	14명
후	14명	25명	35명	16명

〈그림 5〉 피드백 전 후 역사 일기의 유형 비교

피드백 전후 일기 유형 분석



본 연구에서는 아동들이 작성한 역사 일기 쓰기에서 드러난 오류를 배경 지식의 활성화 단계로 피드백하여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배경지식을 잘못 알고 있는 아동들에게는 학습 주제에 부합하는 학습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오류를 수정하도록 하였다. 인물에 대한 감정이입적인 자극을 반복하는 과정을 거친 후, 단위 일기에서 시대성과 공감성을 표현하는 문장이 많이 늘어났으며, 전체적으로 시대성과 공감성을 포함하는 일기를 작성한 아동이 피드백 전에 비해 8명이 늘어났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인물에 대해 맥락적으로 감정이입을 하는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아동이 작성한 역사 일기에 드러난 오류를 수정하는 과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V. 결론 및 고찰

본 논문에서는 인물사 학습에 있어서 역사 일기 쓰기 학습 모형을 적용하여 감정이입적 역사 이해력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구체적인 단계와 방법을 제시하고, 학생의 감정이입적 역사 이해 양상과 그 효과를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결론

인물사 학습에 있어 감정이입적 역사학습은 역사적 사건과 시대를 이해하고 현재 삶에 반영하는 교수·학습이며 인물의 역사적 행위를 맥락적으로 이해하는 데 의미를 둔다. 아동들은 역사적인 인물에 감정이입을 하여 마치 자신이 그러한 인물이 된 것처럼 역사적 사건에 직접적으로 빠져들게 된다. 이러한 역사적인 인물에 대한 맥락적인 이해는 인물에 대한 객관적인 역사 자료의 수집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배경 지식을 형성하며, 이렇게 형성된 배경 지식은 감정이입의 과정을 거쳐 활성화된다. 감정이입적으로 활성화된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역사 일기를 쓰는 활동을 통해 아동들은 실제의 역사적인 인물이 되어 인물을 내면적으로 이해하며, 인물의 의도를 다각도로 파악하게 된다. 또한 인물을 둘러싼 역사적인 정황을 인물의 행위와 관련지어 이해하는 시도를 할 수 있다.

아동들은 스스로의 역사일기를 작성함으로써 역사에 흥미를 가지며 차후의 과제를 해결해 나간다. 이러한 역사일기는 역사적 사건을 둘러싼 인물

들의 삶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며, 시대의 흐름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감정이입적인 역사일기의 작성에 있어 배경지식을 형성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은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학생들이 수집한 자료가 인물에 대한 기존의 단순한 사실 위주의 자료보다는 학생들로 하여금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고 감정이입이 용이한 자료일 때에 아동은 역사 속에서의 사건이나 생활을 자신의 것으로 느끼며 사고할 수 있다.

역사일기쓰기 단계로 (i) 역사일기의 주제 설정 (ii) 배경 지식의 형성 (iii) 감정이입을 통한 배경지식의 활성화 (iv) 상상적 재구성 (v) 평가 (vi) 피드백을 제시하였다.

역사일기의 완성도는 부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역사를 재구성하여 쓴 역사 일기, 역사적인 사실만을 나열하여 재구성한 일기,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시대성과 공감성을 포함한 역사일기, 역사일기 내에서 역사적 사실의 내면을 이해하며, 시대성과 공감성을 포함하는 역사 일기 4수준으로 나누어지며, 마지막 수준의 역사일기에서 역사적인 인물에 대한 감정이입적 이해가 가장 잘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다.

본 논문은 일제 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독립운동가 중, 의병 전쟁을 이끈 인물로서 신돌석, 애국계몽운동에 앞장선 인물로서 안창호, 민족 지도자 김구를 대상으로 인물사의 주제를 선정하였다. 일제 강점기를 배경으로 수업 모형을 적용한 이유는 일제 강점기라는 위기 상황에서 아동들은 보다 적극적인 감정이입의 태도를 보이기 때문이며, 또한 일제 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인물들 중, 위의 세 인물이 교과서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고 아동들이 수집할 수 있는 자료가 비교적 다양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학습 모형은 신돌석, 안창호, 김구를 주제로 하여 총 6차시에 걸쳐 수업에 적용하였으며 시기적으로 봤을 때 맥락적 단계에 이

른 역사 일기가 가장 많이 작성된 수업은 5월 1주에 수업이 이루어진 김구를 주제로 한 수업이었다. 이는 앞선 수업을 통해 역사일기에서의 오류를 통해 배경 지식의 활성화를 다시 거치는 피드백 과정을 되풀이한 결과로 보인다.

아동들이 역사 일기를 쓰는 과정에서 자주 발견되는 오류로는 배경지식의 부정확함에서 오는 오류가 가장 많았다. 이는 아동들이 배경 지식의 형성 단계에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을 소홀히 하였거나, 내용을 충분히 활성화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역사 일기를 썼기 때문에 생긴 오류로 생각된다. 특히 연대기적인 사고에 미숙한 대다수의 아동들은 인물의 활동 시기에 대해 부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눈에 띄었다. 아동들이 배경 지식을 정확하지 않게 인식하고 있음은 자신이 감정이입의 대상으로 삼은 인물의 활동 내용에 대해서도 대충, ‘독립운동을 하였다’와 같이 대략적인 내용만 언급하는 데서도 나타났다. 배경 지식에 대한 오류로서 나타나는 마지막 형태는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인물의 의도를 역사적인 상황을 인식하지 않고 지극히 고정관념에 따라 이해함으로써 생기는 오류였다. 이는 역사적인 배경이나 상황에 대한 조사가 미흡하였거나 충분히 사전 학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오류인 것으로 보인다.

자신이 수집한 자료를 충분히 감정이입적으로 활성화시키지 못한 채, 역사 일기를 쓴 아동들 중에는 자료를 보고 베낀 것처럼 역사적인 사실만을 나열한 일기가 전체의 15%에 해당했다. 이들 일기의 대부분은 인물의 활동을 시기에 따라 순서대로 씌으로써 전혀 인물의 의도나 역사적인 상황을 맥락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조차 되지 않았다. 아동들 중에는 인물의 활동을 위주로 한 역사적인 사실만을 나열한 다음, 마지막에 가서 인물의 인간성 및 됃됨이에 중점을 두고 이것을 닮아야겠다는 식의 일기를 쓴 유형이 있었으며, 또 인물을 둘러싼 에피소드나 설화만 적어놓고 이에 대한 도덕

적인 교훈을 얻었다는 식의 결론을 내기도 했다. 이는 자료를 분석하고 감정이입적으로 활성화하는 단계를 소홀히 하였거나, 인물에 대한 맥락적인 감정이입을 적극적으로 하기 보다는 위인전과 같은 감정이입적인 형태로 쓰여진 텍스트를 비판없이 받아들인 데서 생긴 오류인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개발하여 적용한 수업 모형을 적용한 결과, 역사 일기의 완성도 면에서 미흡한 결과를 보이는 아동은 감정이입적인 역사적 사고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배경 지식을 활성화시키는 단계로 피드백을 하게 된다. 아동들이 수집하여 형성한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인물에 대한 감정이입적인 사고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교사는 사고의 전환을 꾀하는 발문과 사료, 이야기 자료 등을 활용하였다. 아동이 작성한 역사 일기에 나타난 감정이입적인 사고의 단계는 피드백의 과정을 거치면서 처음의 일기에 비해 향상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2. 고찰

지금까지 초등학교 6학년을 상대로 역사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에게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일들을 연대기적으로 인지시키는 데 중점을 둔 나머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그것은 역사를 보는 관점과 같은 사건을 시대성과 공감성을 반영하여 이해하려는 시도였던 것 같다.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과 초등 사회과 지도서에는 본시 학습의 전개과정과 학습 목표와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지도해야 할 부분을 명시하고 있지만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강조함으로써 정작 학생들이 관심을 보이는 역사적인 인물들에 대한 감정이입적인 이해를 방해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렇기에 교사의 역할은 단순히 교육과정을 전달하여 학생들의 학업성취를 확인하는 데 머무르는 게 그쳐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학생들의 관심사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학습에 적용할 수 있는 수업 모형을 구안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교사에게 부여된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인 것이다. 그렇기에 본 연구에서 적용한 인물에 대한 감정이입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 수업 모형의 개발과 이를 적용한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을 통해 역사교사로서의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역사 수업을 하면서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찾고 이를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재구성을 하는 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또한 학생들이 스스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는데 이것은 자료를 선별하여 수집하는 아동들의 능력이 아직 미숙하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역사와 관련된 자료들 중 아동들의 눈높이에 맞다고 여겨지는 참고서적은 대부분 학습 만화로 제시되는 것에서 그칠 뿐이었다. 그 외에 수집한 자료들은 대부분 인터넷을 통해 얻은 것으로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초등학생들이 어른들의 설명이나 해설 없이는 이해하기 힘들었으므로 역사 일기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상당수의 아이들에게서 역사적인 오류를 발견하였다. 초등학생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자료나 매체가 개발되어서 접근성이 용이한 방법으로 배포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들었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과정에서 배당된 차시보다 더 많은 수업 시간을 할애하여 인물사 학습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실제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 배당된 차시 안에 아동들의 감정이입적인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하기는 역부족이다. 그것은 수업 내용이 지나치게 많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교과서 서술방식 자체도 연대기적인 진행과 설명적인 텍스트로 일관되어 있어서 아동들이 역사적인 인물 및 사건을 이해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만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그 자체를 이해하기 위해 오히려 다른 참고 문헌이나 자료를 필요로 한다는 데 있다. 이는 교과서가 좀 더 이야기 형식을 잘 이해하는 초등학생들의 인지 수준에 맞게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게 서술 형식에 있어서 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짧은 수업 시간 동안 많은 것을 주입하기에 바쁜 현실의 역사 수업에서 가장 이루어지기 힘든 것이 바로 학습 결과를 평가하고 학습 목표의 도달에 미치지 못하는 아동에 대한 피드백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피드백의 과정에 가장 큰 의미를 두었다. 학생들이 작성한 역사 일기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서로에게 질문과 대답을 하는 과정에서 역사적인 사실이나, 인물 및 시대적인 상황에 대한 잘못된 인식하고 있는 부분을 스스로 깨닫고 자기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일기에 드러난 오류 중, 역사적인 사실과 관련된 오류는 배경 지식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비롯되었으며 인물 및 시대적인 상황에 대한 공감성이 부족한 일기의 경우 배경 지식을 감정이입적으로 활성화는 하는 단계에서 생긴 오류인 것으로 파악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피드백의 과정에서 정확히 선별된 자료를 투입하거나 학생들이 감정이입적으로 사건을 이해하기 쉬운 영상 매체나 이야기 형식의 텍스트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피드백의 과정은 주로 방과 후에 이루어졌으며 학급 홈페이지를 통해 피드백을 거쳐서 완성한 역사 일기를 과제로 제시하였다. 피드백을 거쳐서 완성한 역사 일기는 처음의 것과 비교했을 때 오류의 상당 부분이 수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첫 수업에 비해, 수업이 거듭될수록 피드백을 거치기 전의 일기의 완성도가 높아졌음은 처음의 피드백이 이후의 수업과정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글쓰기에 관심이 있는 아동들에 비해 평소 글쓰기의 습관이 형성되어 있지 않는 아동들은 실제 역사를 감정이입적으로 이해

하고 있는 것과 상관없이 역사 일기 자체의 완성도가 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감정이입적으로 역사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아동의 성향에 따라 글쓰기 뿐 아니라, 다른 방법 가령 만화나 역할극 등을 더불어 활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표집수가 너무 작다는 문제점이 있었으며 이는 후속 연구로 남겨두겠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E. H. Carr(길현모 역), 역사란 무엇인가, 탐구당, 1981.
- R. G. Callingwood(김봉호 역), 서양사학사, 탐구당(탐구신서115), 1984.
- 김인결(한국역사연구회편), 「현대한국사학의 과제」, 20세기 역사학, 21세기 역사학, 역사비평사, 2000.
- 전국역사교사모임, 살아있는 한국사교과서1,2, 휴머니스트, 2002.
- 정선영 외, 역사교육의 이해, 삼지원, 2001.
- 교육인적자원부, 초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사회, 2005
- 김한중 외, 역사교육과 역사인식, 교육과학사, 2003
- 김한중, 역사적 사고력의 구성요소와 역사수업의 발문, 교육과학사, 1996
- 한경자·김한중, 역사과 수업모형의 이론과 실제, 교육과학사, 1989
- 전국역사교사 모임, 우리 아이들에게 역사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2002
- 문창로, '역사 글쓰기'를 통한 歷史學習의 접근방안, 중등교육연구, 2005
- 차하순, 역사의 본질과 인식, 학연사, 1988
- 강우철, 역사의 교육, 교학사, 1974
- 이원순, 이정인, 역사교육의 이론과 실제, 정음문화사, 1985
- 송준영·이창욱, 중학교 국사교육에 있어서 효과적인 인물지도와 접근방안, 역사교육, 1977
- 최상훈, 역사적 사고력의 의미와 하위 범주, 역사교육과 역사인식, 책과 함께, 2006
- 김한중, 역사학습에서의 상상적 이해의 방안, 『역사교육의 이론과 방법』, 삼지원, 1997

2. 논문

- 김문석, <감정이입을 활용한 역사 수업과 학생의 역사이해>, 한국 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김미경, <감정이입적 역사이해를 위한 ICT 활용 교수·학습 과정안 개발>,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김한중, <역사 학습에서의 상상적 이해>,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 박정희, <역사적 사고력 신장을 위한 창의적 글쓰기 학습 방안>,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최세훈, <역사적 사고력 향상을 위한 인물을 통한 감정이입적 역사학습 프로그램 개발>,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윤영주, <역사일기쓰기를 통한 주체적 역사학습>, 서울교육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이현정, <감정이입을 활용한 역사 학습 모형 개발>, 서강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김보미, <역사교육에서 주체적 역사학습의 유형과 활용>, 국민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김한중, <歷史教育에서의 想像的 理解>,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